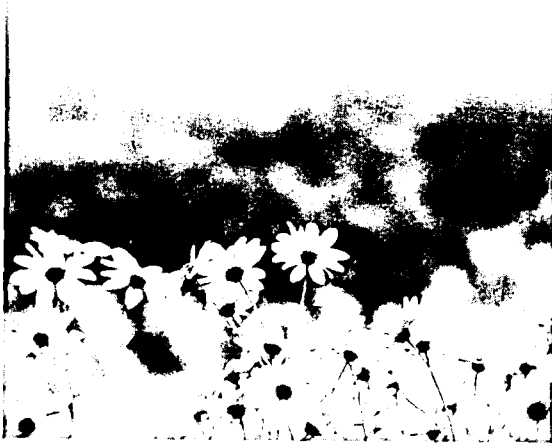


제8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실바람에 실은 희망

- 운 문 집 -



통일교육원

| 발간사 |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발전되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등 복잡하고 예민한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사회의 여론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비전은 국민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언제' 보다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며, 숙명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중하면서도 용기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문제의 다른 한 당사자인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제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통일과정을 보다 순조롭고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입니다.

여덟째를 맞이한 올해는 전국 총 9,885교, 540,576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288명의 입상작품을 모아 2권의 책자(운문집, 산문집)로 엮어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집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북한·통일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0월

통일교육원장 박성훈

차례

서울특별시 9

- 꿈은 이루어집니다 / 11
- 울 환배 / 16
- 바다를 건너 태양에 이르다 / 20
- 내 나이 서른엔 / 23
- 한쪽 날개를 잃은 나비 / 25
- 희망의 씨앗 / 26
- 그 날의 봄이 오면 / 28
- 늙은 새로부터 / 31
- 회상 / 34

부산광역시 37

-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잖아 / 39
- 이 번의 빛과 저 번의 빛이 하나를 비출 수 있다면 / 42
-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잇기 위해 / 45
- 어깨동무 내 동무 / 47
- 그 날이 오면 / 51
- 침묵 / 53
- 북한 친구들에게 / 55
- 연어의 외침을 들어 보았는가 / 57
- 하나라는 아름다운 승리 / 60

인천광역시 63

- 이산가족의 소망 / 65
- 우리가 손 잡는 그날까지... / 67
- 우리가 손 잡는 그날까지... / 69
- 통일 열차 / 72
- 하나됨을 위하여 / 74
- 이산가족의 소망 / 76
- 통일 열차 / 79
- 통일 열차 / 81
- 이산가족의 소망 / 83

대구광역시 85

- 줄넘기 / 87
- 어떤 임종 / 89
- 소원 / 91
- 휴전선 까치집 / 93
- 멈추어버린 기차의 소망 / 96
- 철모 / 99
- 통일을 꿈꾸는 아이들 / 101
- 돌아오지 못한 님 / 103
- 그 날 / 105

광주광역시 107

- 기차 / 109
- 통일동산에 서서 / 111
-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 113
- 멀고도 가까운 마음 / 115
- 통일의 꽃 향기여 / 118
- 통인이라는 당신의 소망 / 119
-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 121
- 험한 통일로의 길 / 123
- 평화의 문 / 125

대전광역시 127

- 우리는 한 형제 / 129
- 이제는 통일 / 131
- 탄식 / 134
- 하나된 우리 / 136
- 통일의 씨앗 / 139
- 침묵하는 시계를 소원한다 / 143
- 지혜의 햇불 들고 / 144
- 남매의 꿈 / 147
- 민들레 / 150

울산광역시 153

- 한 나무의 다른 가지 / 155
- 통일의 문 / 158
- 북녘을 바라보며 / 159
- 할머니의 친구 / 162
- 파랑새 / 164
- 1950년 6월 25일의 단(斷) / 166
- 종이비행기를 날리라 / 168
- 창문하나 / 170
- 도라산에서 다시 만나리 / 172

경기도 173

- 통일열차를 기다리며 / 175
- 한 걸음 한 걸음 / 177
- 6월의 휴전선 / 179
- 멀리지 않는 문 / 181
- 그 길을 / 183
- 화합의 그 날 / 186
- 친구에게 / 188
- 그 길이 이어질때까지 / 191
- 북으로 연을 날리라 / 193

강원도 195

- 어른들은 믿을까? / 197
- 통일이라는 조각 맞추기 / 199
- 천마는 달리고 싶다 / 200
- 할머니의 수저집 / 202
- 내가 새라면 / 205
- 축제 / 207
- 통일의 바람 / 209
- 물 / 210
- 금강산 / 212

충청북도 215

- 통일의 그 날 / 217
- 하나되는 마음으로 / 219
- 강 / 221

- 실바람에 실은 희망 / 223
-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 225
- 조각난 어둠 / 228
- 천지에서서 / 230
- 나의 반쪽 / 232
- 포기없는 기다림 / 235

충청남도 237

- 통일이 되면 / 239
- 통일의 기도 / 241
- 봄 밤 / 243
- 통일바라기 / 245
- 통일 / 247
- 하나가 될 때까지 / 249
- 울리라, 통일 끝든벨 / 251
- 통일 / 253
- 관문점에서 본 시계 / 254

경상북도 255

- 고무줄 놀이 / 257
- 그 날은 오리다 / 259
- 우리는 가족 / 261
- 하늘아 / 263
- 그랬으면 좋겠네 / 265
- 무궁화 / 267
- 통일이 되면 / 269
- 만남 / 272
- 기다림의 끝에 서있을 그대는 / 275

경상남도 279

- 그리운 고향 / 281
- 고향 / 283
- 고향가는 작은 새를 보내며 / 285
- 고향 길 비스 / 286
-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 / 288
- 나의 고향 / 290
- 잃어버린 우리 고향 / 292
- 고향 / 294
- 고향-남과 북 / 296

전라북도 299

- 통일 나비 / 301
- 도라산 전망대 위에서 / 303
-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 304
- 통일의 바다 / 308
-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 310
- 그 날을 기다리며 / 312
- 통일로 가는 열차 / 315
- 어머니의 미소 / 317
- 무궁화가 시듭니다 / 319

전라남도 321

- 꿈꾸는 경의선 / 323
- 무궁화 꽃 길 / 325
- 우리나라 지도 / 327
- 너와 나 하나되는 날 / 329
- 풀꽃 / 331
- 앞집 할아버지 / 334
- 통일의 파도 / 336
- 반세기의 기다림 / 338
- 마음과 핏줄의 힘 / 341

제주도 343

- 새가 되고 싶으신 할머니 / 345
- 그 날을 꿈꾸며 / 347
- 우리의 소망 / 349
- 휴전선의 꿈 / 351
- 휴전선에서 있는 오래된 나무는... / 353
- 할아버지의 소원 / 356
- 동생과 나처럼 / 358
- 지빠귀새에 담은 바람 / 361
- 행복하길 바라며... / 363



● **신작특별선**

- 꿈은 이루어집니다 / 11
- 울 할배 / 16
- 바다를 건너 태양에 이르다 / 20
- 내 나이 서른엔 / 23
- 한쪽 날개를 잃은 나비 / 25
- 희망의 씨앗 / 26
- 그 날의 봄이 오면 / 28
- 늙은 새로부터 / 31
- 회상 / 34

꿈은 이루어집니다.

문교초 6 류영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 켠에 남아
아련히 가슴을 울리는
하나라는 말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외톨이 조각구름과
떠돌이 바람이 말하던
함께 라는 말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만을 찾아
힘차게 달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높은 철조망
흔적 뛰어넘어
형제 자매 부둥켜 안고
가만히 내뻗던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50년 전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별을...

이제는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까만 눈동자에서
흐르던 그 눈물을
함께라는 손수건 한 장으로
이제는 닦아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희망찬 웃음소리와
밝은 목소리를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감싸주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얀 빛 비취주는
차라리 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되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슬플 때 한번쯤은 보겠죠
그들도 기쁠 때 한번쯤은 보겠죠
그들이 언젠가 보게 될 별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절대 아니었습니다.
웃는 아침 해와
성난 비바람처럼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어야 함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고입니다.
함께 하자란 그 말이



꿈은 이루어 집니다

왜 이리 어려운지
목이 메어
눈물이 고입니다.

이젠 크게 외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져
북쪽으로 북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젠 외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유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유없이 그냥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힘든 나날에 지쳐 잊어버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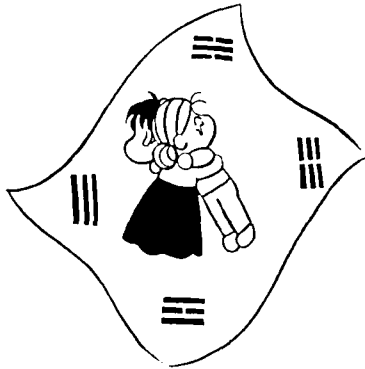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 함께, 희망 그리고 사랑을요.

기다리세요
함께 함으로 인해
즐거울 그날을요.

잊지마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울 할배

목동중 2 김하나

어릴 적 울 할배가 뛰놀던
손 뺏으면 손 닿을 것 같은
저어기- 북한.

호랑이처럼 엄하기로 소문나고
바늘로 찢어도 꿈쩍않는
그 할배가, 우리 할배가
차가운 눈을 가진 울 할배가

어찌다 먹는
옛 우리 음식 한 입에
차가운 눈은 금방이라도
“와앙!” 하고
울음을 터트릴 기세로, 갓난아이처럼.

이른 새벽,
이슬 맺힐 즈음에
처억- 신문놓고 간 소리에
차가운 눈은 새벽이지만
“어디 우리 고향기사 없나?” 하고



울 할배

눈동자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개미처럼.

대체 무얼까?
차가운 할배 눈을
그리움에 애태우고
무언가에 갈망하게 하는...

아하! 알았다.
그건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기 때문야
한겨레이기 때문야
한핏줄이기 때문야

이 땅에서 하나뿐인
갈라진 나라라고
철조망 처진 나라라고
살과 살이 나누어지고
피와 피가 갈라진
아픔 때문야



눈물 때문야
사랑 때문야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울 할배가 계속
따뜻한 눈 가지게 하자.

울음보다는 웃음으로
옛 우리 음식 먹고
분주함보다는 여유로움으로
신문보게 하자.

우리 마음 속에
가만히 싹튼
통일에 대한
눈물의 그 꽃으로

휴전선이 걸히고
내 편지 새가 되어
북한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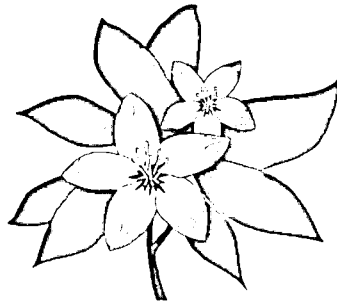


울 할배 가족, 내 가족에게 닿아
웃음짓는 그 날까지
통일 꽃 키우며 기도를 하자

할배!
이제는 울지마요...

p.s 저희 할아버지는 73세로 당뇨까지 겹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를 건너 태양에 이른다

영동여고 2 박다영

어제,
외할머니의 힘없이 갈라진 눈에서
짜디짠 바다가 흘렀습니다.

사진 속,
누렇게 빛바랜 하늘 아래
해맑은 미소의 소년이, 금방이라도
바다를 헤치고 나올 듯 했습니다.

그런 소년의 미소가 눈부셨는지
외할머니는
자꾸만 당신의 마른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훑어냅니다.

토요일
그리움에 젖은 사진에
또 한 방울의 그리움이 떨어지고…….

오늘도
외할머니의 힘없이 갈라진 눈에서



바다를 건너 태양에 이르다

짜디짤 바다가 흐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외할머니의 바다.
그 바다를 헤치고
태양이 솟은 날, 바로 그 날.

깊게 상처 난 마른 손으로
소년의 미소를 꼬옥 쥐 채
외할머니는 태양을 미주합니다.
이제는 소년이 아닌 그 태양을.

토옥
괴로움에 사무친 태양의 어깨에
한 방울의 사랑이 떨어지고…….

내일은.
외할머니의 거칠은 바다 위에
따스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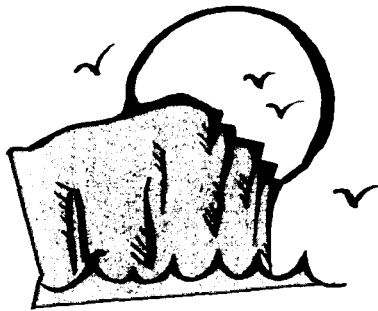
혹시 그 바다가



바다를 건너 태양에 이르다

영영 마르지 않는다 해도

태양이 있기에, 끊임없이
바다는 빛의 물결을 그릴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내 나이 서른엔

녹번초 5 이연주

내 나이 여덟에
대통령 할아버지 북한 다녀오시고
소떼몰고 북한 가는 기업가 있었네
반세기 넘어 만나 목 메는 사람들
웬지 모를 설움에 나도 따라 울었네

내 나이 아홉에
엄마와 단둘이 금강산 구경갔네
눈이 시린 상팔담
용을 닮은 구룡폭포
온갖 형상 빚어놓은 만물상 바라보며
우리 민족 통일의 꿈 가득 키웠네

내 나이 열 살에
여름방학 공부삼아 땅굴구경 갔었네
파내려온 북한 땅굴 아빠 설명 들으며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지켜야 할 이유 알았네

내 나이 열둘에

경의선 공사현장 도라산역 구경갔네
푸른 벌판 가로지른 경의철도 바빠지고
통일 향한 기적소리 크게 울릴 때
우리가족 열차타고 개성가는 꿈꾸었네

내 나이 스물엔

신입생 환영회 북한에서 하고싶네
백두산 정상 올라 아리랑 합창하며
월드컵 열리던 그때의 함성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치고 싶네

내 나이 서른엔

아빠 엄마 손잡고 아이 손잡고
부산가듯 광주가듯 북한에 가고 싶네
해금강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아홉살 그 추억 돌아보고 싶네



한쪽 날개를 잃은 나비

한양사대부중 3 최지혜

새파란 하늘을 거닐다
바람에 찢겨진 한 쪽 날개

접어 겹친 양 숨겨보지만
눈물은 숨길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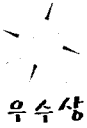
오색깔 꽃들이 만발한
저 곳은 천국인가.

날아가려 펴려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순한 바람 뿐

몸은 찢겨졌고,
마음도 찢어졌지만

나비는 가까운 곳의 나머지를
웃음으로 꿰맸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그 곳으로 훨훨 날아갔다.



희망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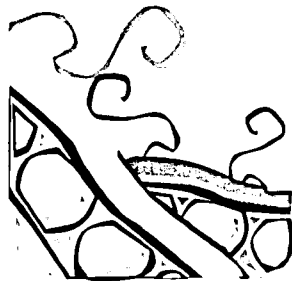
혜화여고 3 김유경

호주머니 속 꺼내든 열여덟 날의 기억-

전방 부대의 지난 여름
끔직한 군복 속 몸을 채우고
발걸음마저 두근거리던 그곳-민통선
한겹 낮은 철조망 넘어
그늘 내려앉은 오솔길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
탄피 스친 상처 속 지쳐있던 비석
한없이 우리를 반겨준다.
그 뒤로 염원의 땅
비무장지대 등 뒤로 넘실거린다
싸늘히 식은 철조망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형제의 땅 바라봄에
석류알 터지듯 떠오르는
엇갈린 지난 날의 기억
여린 내 가슴 도려내도
멀리있지 않음에 날 달랜다
뒤돌아 오는 길-
분단의 고통, 쓰라린 아픔

군복과 함께 툭툭 벗어버리고
씨앗이 되어
북쪽으로 북쪽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상 믿을 수 있는
희망, 통일이 되어 꽃피우는 그 날을





그날의 봄이 오면

요곡초 6 이희운

그 해 봄도
임진강 저쪽
개나리 꽃그늘은
노오란 색을 뿜내며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봄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수에도 풀리지 않는
대동강처럼

그 해 봄
할아버지는
진짜 봄이 오려나
입춘대길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봄은
늘 그랬습니다.
양상한 나뭇가지사이



그날의 봄이 오면

바람처럼

그 해 봄

할아버지의 봄은

꿈 하나 신고

임진강으로 흘러 흘러

갔습니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는

영원히 잊어 버렸습니다.

백두산의 큰 친지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봄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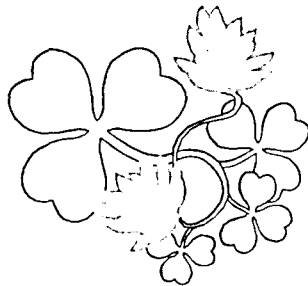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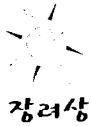
그날의 봄이 오면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봄과
평양의 봄을
그리고
대동강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임진강이
통일의 꿈을 싣고
흐른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새로부터

백석중 3 김태희

노조의 울음소리에 매달린
반 백년의 세월아.

외눈박이 반 장님이 된
안구 깊숙히 불똥들이
보지 못할 역사를
읽어내림을 알고 있느냐.

피떡이 되어 문드러진
하나뿐인 귀가
듣지 못할 조롱소리에
눈물 흘림을 알고 있느냐.

분단선의 철조망에 얽혀
별어지지 않는 입이
굴러가지 않는 혀를 뿔뿔건만
울분을 토해내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흙 구정물 깊이 처박혀
미미한 혈떡임도



뺏어내지 못하는 코가
혈향을 맡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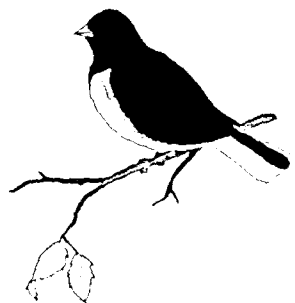
세월아
네가 잡아둔 것은
반 쪼가리 살덩이 뿐이며
신의 권능을 지닌 자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뿐이라.
노조의 꺼져가는 생명도
거둘 수 없게 되었구나.

무어 가질 것 있는 몸이라
이토록 후한 벌을 준단 말인가.

노예가 된 우리에게서
얼 만큼 우려먹을
사익과 권익이 있다하여
복으로 흘러가는 구름, 구름에
짙은 먹을 떨구느냔 말인가.

노조의 울음소리에 매달린
반 백년의 세월아

짧은 생이 바라는 유일무이 한 것은
반 병신 된 몸뚱아리를
고치는 것 뿐이었거늘.
혈풍과 혈겁으로 노을진
둥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바람이라 하소연 해다오.





회상

문명여고 1 이원기

하늘은
작열하는 태양 가운데
빗방울 떨어뜨리고

나는
아찔한 빛줄기 사이
꿈꾸는 바람

만주 너머
요동까지
거침없이 말달리던 기백

총칼도 두렵잖아
흰 옷
붉게 물들어서도
함께 부르던
3월의 만세소리

어둠에는
파도로 온 몸 부딪혀

시퍼렇게 멍들던
바다

따스한 봄엔
어깨동무하고
박꽃처럼
훤
미소

이제
고구려의 성벽은
길림의 돌담이 되었고

나는
가만히 동전을 넣으며
유리알 너머로
천원의 반
꼭
그만큼의 조국을
바라볼 뿐이다.

● 부산광역시

- 우리에게엔 아직 희망이 있잖아 / 39
- 이 별의 빛과 저 별의 빛이 하나를 비출 수 있다면 / 42
-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잇기 위해 / 45
- 어깨동무 내 동무 / 47
- 그 날이 오면 / 51
- 침묵 / 53
- 북한 친구들에게 / 55
- 연어의 외침을 들어 보았는가 / 57
- 하나라는 아름다운 승리 / 60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잖아

연학초 6 김민정

남, 북으로 갈라져
만날 수 없게 막아 놓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민족 이란걸
잊지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진 말아죠

푸른 하늘 구름들이
너를 위해 방긋 웃어줄 테니까

저기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렴

푸른 하늘 뭉개구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엔 아직 희망이 있잖아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달리자

통일이 널 기다리고
있을거야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미래엔 우리들은
함께 즐겁게 웃고 있을 테니까

포기하진 말아죠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날은 힘들지만
미래엔 활기찬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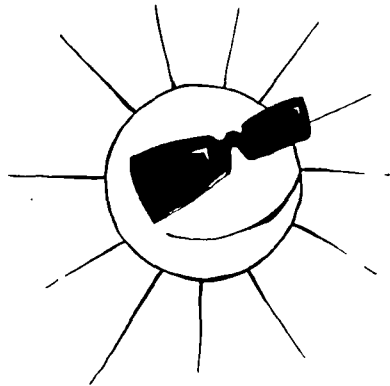
지금은 갈라져
너무나 어두운 하루이지만



우리엔 아직 희망이 있잖아

미래엔 전기불 반딧불
모두 모여 어두운 하루를 밝혀 줄테니까

우리 모두 힘내자
미래에 웃고 있는 통일을 위해서



이 별의 빛과 저 별의 빛이 하나를 비출 수 있다면

부산동여중 3 백승주

위의 땅에도 햇빛은 내리고
아래의 땅에도 바람은 불지만
점점 커져만가는 그 소리에

햇빛도, 바람도 이젠…
더이상 존재하기 싫단다.

아침이 햇빛을 따라
또 햇빛은 해를 따라
내 주위를 떠나면

내 안타까운 심정을 아는지
오늘은 또 반달이다….

나와 눈 마주친 별들은
하나의 별에도 빛이 있고
그 별과 다른 별 사이에도
빛은 존재하지만,



이 별의 빛과 저 별의 빛이 하나를 비출 수 있다면

그 하나에 별의 빛 보다는
더 밝고 간절하지 못하다.

그 별과 별을 합치면
두개가 되지만,
하나의 빛과 빛을 합치면
그대로 하나가 되듯,

우리가 소원하는 그 둘을 합쳐도
다시 하나가 되기를…….

점점 커져가던 그 소리가
'그 하나'를 느끼고
그의 영혼이 담긴 눈물을 흘리는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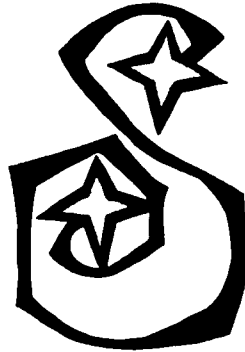
그 별들은 하나로 통일 된
그것을 비추고,



이 별의 빛과 저 별의 빛이 하나를 비출 수 있다면

그 위로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어느새 둥글게 변한 달빛 속으로

조용히...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최우수상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잇기 위해

영도여고 3 오지영

내꺼야! 내꺼야!
손목시계 양 끝을
팽팽히 잡아 당기는 두 형제.

양보 없는 다툼 속에
상처마다 긁혀진 핏자국 사이로
서로를 응시하는 붉은 눈빛.

팽팽하게 힘 주어진
손마다 멍혀있는
붉은 땀방울

내꺼야! 내꺼야!
형제의 분열된 힘에
뚜욱뚝 끊어져 버린 시계줄.

짜각짜각 시계소리가
과앙과앙 형제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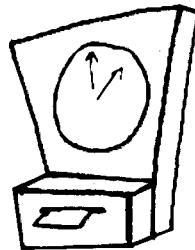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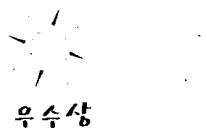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잇기 위해

그제야 알았다.
끊어진 건 시계줄 만이 아니라
반쪽짜리 시계줄을 부여잡고
나가 떨어진 형제의 연이었음을.

끊어져 버린 시계 줄에도
무의미하게 잘도 돌아가는
시계 바늘은
이미 멈추어진 우리 민족의 시간.

형제여!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잇기 위해
우리 다시 함께 하자.





어깨동무 내 동무

청룡초 6 박유진

오늘도 가을 들녘
나무 아래에서
내 북녘 친구를
생각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사는
나의 북녘 친구.

북녘 땅 내 친구야!
아직 오려면 멀었니?
조금 일찍 올 수는
없겠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쪽 친구는
통일만 기다린단다.



어깨동무 내 동무

우리 남한의
국기가 한반도가
될 때 째이면

우리 서로
어깨 동무
내 동무하고

머나먼 산 길 따라
꽃 내음 맡으며
두 손 마주잡고
이야기 할거야.

우리가 어깨동무
내 동무 할 때
째이면

가을 들녘
풀피리 불며
이야기 나누자.



북녘 땅 내 친구야!
우리가 빨리
만나기 위해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서로 서로가
통일이 빨리
오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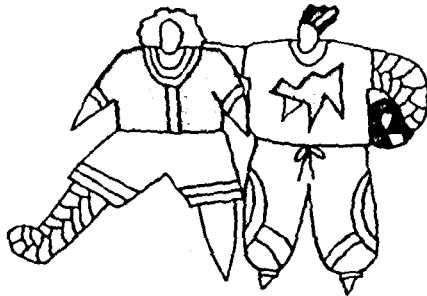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어야 해

나의 북녘
친구들아!



어깨동무 내 동무

동일이 되어
서로 어깨동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손모아
기도하자.





그 날이 오면

동신중 3 박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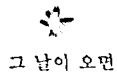
그 날이 오면
봄의 싱그러움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오면

음과 양
대동의 정기가
하나 되겠네

그 날이 오면
여름의 길푸른 녹음이
밀려드는
그 날이 오면

태극의 함성
전 세계를
매아리 치겠네

그 날이 오면
가을의 황금빛 들판이



그 날이 오면

노래하는
그 날이 오면

두만강에서 낙동강까지
거룩한 눈물로
길이 길이 푸르겠네

그 날이 오면
겨울의 별빛이
들어와 박히는
그 날이 오면

반 백년
민족의 한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겠네

침묵

부산 강서고 2 김효정

녹슨 칠조망을 가슴에 묻어두고
기나긴 세월을 지내온 탓에
당신의 가슴은 시커먼 잿덩어리로
변해만 갑니다.

사람의 정은 한순간에 때어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슬픔은 더해만 갑니다.

홀로 서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한 채
님을 저 멀리 떠나 보내고
슬픈 뒷모습만 보인 당신이 못내 부끄러워
오늘도 깊은 한숨에 주름진 얼굴만
가득하네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당신은 언제나 저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둔 그 외로운 이름 석자를 불러
봅니다.

오늘도 슬픈 비가 내리네요.



거기 그 곳은 어떤가요?

설마, 이 비가 한이 되어버린 당신의
눈물은 아니겠죠?

하늘은 깨질듯한 쪽빛을 드리우며
어느덧, 6월의 반을 지나 갑니다.
두 쪽이 되어버린 하늘도
언젠가는, 반쪽을 찾아 나서겠죠

나는 당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얀 국화꽃 두송이를 바칩니다.



북한 친구들에게

창신초 6 박지혜

친구야!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를 슬프게 한다.
한번도 뵈지 못한
큰 아빠의 얼굴 그리면
한숨 속에 눈물짓는
할머니의 눈빛도
나를 슬프게 한다.

까아만 밤
모두 모여 불꽃놀이 할때면
총성소리와 함께
나라위해 목숨 바친
큰 아빠가 더욱 생각나면
눈을 먼데로 둘 때
나를 슬프게 한다.



북한 친구들에게

깊은 밤
배게 베고 누워
내게 이야기 한다.
큰 아빠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효자 이셨다고…….

할머니는
항상 내게 이야기 한다.
얼굴 모르는 큰 아빠이지만
잊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
오늘도 큰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
할머니 걱정마시고
편히 잠드시라고…….

친구야!
아픔과 슬픔으로 그어진
3·8선을 지우고
다시 한 민족이
되고 싶다.

연어의 외침을 들어 보았는가

금양중 1 송지예

산란기에는 어김없이 찾아와
소중히 알을 낳는 연어의 외침을 아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의 외침, 승리의 외침
그 하나의 생명을 피우기까지는
엄청난 아픔과 노력이 있으리라.

매년 얼음이 얼어붙은 춥디추운 겨울에,
뱃속에 알을 안고 죽자 사자 덤벼드는
연어의 외침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타오르는 정열의 외침.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외침.
과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연어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가,



언어의 외침을 들어보았는가

우리도 지금 3·8선이라는 폭포를
거슬러가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인 민족의 핏줄로써
느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넘치는 애국심을 안고
한민족을 사랑하는 평화넘치는
통일의 마음을 한아름 안고
저 높이높은 통일의 날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야만 함이니라.

어쩌면 저 훗날, 아니 바로 내일이
될 수 있는 통일의 날에,
갈라진 한민족 합쳐지는 뜨거운
영광의 날에,
우리는 부르짖을 것이다.
기쁨의 노래를.



연어의 외침을 들어보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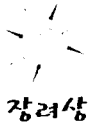
그리고 내뿜는 것이다.
민족의 피를

그리고 외칠 것이다
기쁨의 외침
승리의 외침
하나된 통일의 외침을!

아아…….

우리도 진정 그들과 같이,
연어와 같이 살고 싶어라…….





하나라는 아름다운 승리

부산서여고 2 김슬지

겨울의 초입에 나타나는
쓸쓸한 먹구름에 싸여있는
고즈넉한 밤의 한기 속으로
허리가 잘린 뱀이 눈물섞인 포효가 울려퍼지고
언제쯤 이 어둠이 걷힐지...

망연한 영혼을 가진 이들의
슬픈 기도가 모아지고 또 흩어지고
그들의 가슴에 박힌
파도보다 파란 멍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좁은 대지가 넓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곳도 여기와 다를 것이 없을진대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해를 보며
하나의 달을 보는데
왜 정작 서로는 볼 수 없는건지...

피로 물든 거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녹이 잔뜩 슬은 그 날의 흔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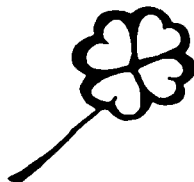



하나라는 아름다운 승리

치절한 고통의 달빛으로 증언되는
그 때의 파리한 영혼들의 쓸쓸한 방향이
진정으로 고통스럽고 서럽도다.

어둠이 빛으로 인해 사라지고
차가운 눈이 서기어린 불에 녹아내리듯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덩어리도
분명 알보드레한 기쁨의 기운으로 풀어질지어나
다만 바라는 건 그 기운의 빠른 강림뿐

그 날, 온몸에 찍혀 있는 낙인이 상흔없이 제거되고
고통으로 눈물짓던 범의 허리도 치유될 것이니
우리는 풍성한 웃음을 짓는 한 하늘 아래서
하나가 되어 반백년동안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영혼의 우릿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 인천광역시

- 이산가족의 소망 / 65
- 우리가 손 잡는 그날까지... / 67
- 우리가 손 잡는 그날까지... / 69
- 통일 열차 / 72
- 하나됨을 위하여 / 74
- 이산가족의 소망 / 76
- 통일 열차 / 79
- 통일 열차 / 81
- 이산가족의 소망 / 83



이산가족의 소망

인천 학익동초 6 계영현

우리 할머니께서는
소망이 한 가지 있으시대요.

북쪽에 계신
할아버지를 만나시는 거래요.

50년전 전쟁때문에 헤어져서
생사도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는 매일 기다리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녁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북쪽으로 훨훨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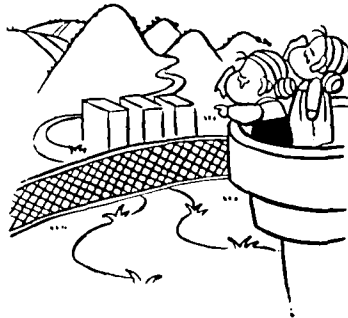


새가 되어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훨훨 날아서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비록 생사는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영원히
할머니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최우승상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인천 남동중 3 오유진

서로의 마음에 칼날같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분단된 조국,
우리는 하나일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주름과 백발이
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
우리는 눈물로 보낸 수십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대 앞에 섰습니다.
꽃 같은 젊음은 사라지고
하이얀 머리와 새파란 미소를
뒤로한 채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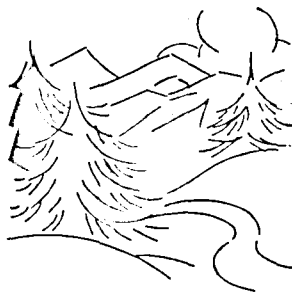
당신이 푸르르고 무성한 숲이면
나는 작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이제 나무도 숲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태초의 땅에서 당신을 만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맞이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찬란한 빛입니다.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학익여고 1 정예지

그 날이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지.
얼근히 취해
이부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우리 개똥이랑 마누라 얼굴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 늙은이 부탁하는데
새싹 같은 너희들이
한 데 뭉쳐
우리나라 엮어주어라.
휴전선, 그 까짓 칠조망
재까짓게 우리 맘 찢는데,
너희가 애써서
우리 서로 손잡게 해주면
꿈에서 늘 보던 내 고향
다리 놓아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
행복하리.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그 때 그 날처럼
그 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
녹녹한 공기속에 일어나
햇살에 이마를 드러내고
발을 갈았지.
크지 않은 발뵈기지만
고루고루 땀을 뿌리며
열심히 발을 일켰지.

새참 먹을 즈음에는,
요 근래 생긴 학교 다닌답시고
밭일은 하나 앓구 놀아나는
개똥이 너석을 붙잡아다
몇 대 쥐어박으며
혼쫄을 내주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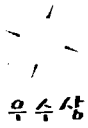
어둑해질 무렵에는,
연쪽빛 하늘에 함께 떠 있는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해와 달을 번갈으며
저 멀리 시집간, 행방 모르는
우리 딸 점네를 떠올렸다네

까만 밤바람이 풀포기 흔들 무렵,
복돌이네 내외를 불러다
우리 마누라 숨씨 담긴
김치부침개를
간장에 콕콕 찍어 삼키며
새콤달콤 막걸리 들이키는데
홍알홍알 복돌네
타령은 시작되고
웁웁웁웁
뭇 놈의 매미가
벌써부터 우냐
이상스럽게…,
이상스럽게….



통일 열차

인천 일신초 6 김진영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남한을 건너서
북한 정거장에
행복이 쏟아지네.

통일 찾는 한국인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 크네.

힘차게 달려라
통일 열차 꿈 향해

힘차게 달려라
통일 열차 꿈 향해
통일 열차 달린다.



열차는 북한을 건너서
남한의 정거장으로

이산가족 모두 싣고
힘차게 달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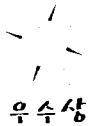
이산가족 만나고나서
우리나라 눈물 바다네.

우리나라 하나되니
사람들의 마음들도
하나가 되네

힘차게 달려라
통일 열차 꿈 향해

힘차게 달려라
통일 열차 꿈 향해

통일 열차 달린다.



하나됨을 위하여

남동중 3 이진경

50년 동안 휴전선이란 철조망 아래
서로를 몰랐던 우리들.
서로 많이 미워했고 많이 아파했다.

이별을 한 남녀의 추억처럼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가고
알게 모르게 서로 참 많이 변했다.

이산가족이란 아픔의 산물이
다시 우리를 이르려 했지만
머리 높은 철조망이 우리를 막았고
수 많은 욕심들이 시간을 지체시켰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하나가 되기 위해 지체했던
시간의 공백을 부수고
수많은 오해를 풀어야 한다.
되돌리기엔 늦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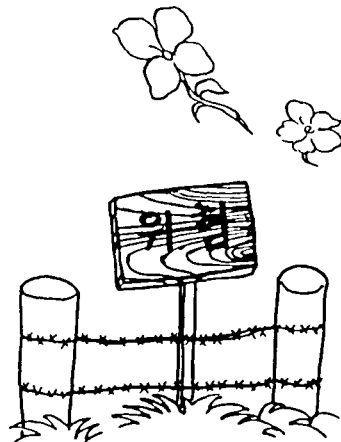


하나됨을 위하여

하지만 하나가 되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기억나는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형제여, 이제 손을 잡자.
철조망은 앓다란 벽에 불과하다.

부쉬라, 저 철조망을
버려라, 끝없는 욕심을
그러면 이루어라,
우리의 오랜 소망인 통일을!





이산가족의 소망

선화여상 2 정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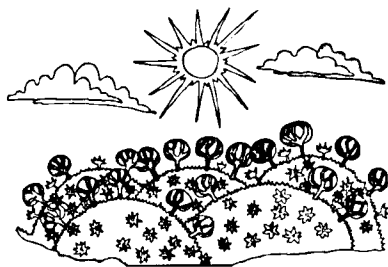
눈물의 편지로 이 아픔
어떻게 표현할까
어머님, 아버님 살아 생전
잘 해 드리지 못하고
효도 한 번 해 드리지 못했거늘
마른 하늘에 천둥같은 대포소리
들려
노란 벚꽃이 산수유 알처럼
붉게 물들었다
검은 하늘에 회색연기 헤치고
먼 길 떠나 폭풍우같은
산 고개를 넘고 넘어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잠깐이면 된다 잠깐이면 돼
하시던 나의 어머니
그렇게 잠깐이면 된다 하신 것이
몇 십년이 지났는지
다섯 살 난 막내가 이제는
나이 예순이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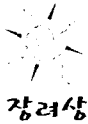


손주들 재롱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진 후로
그리움에 사무쳐 억지로 잠을
칭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어느 덧 다섯 살의
막내가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새까만 검은머리도 이제 하얀
백발이 다 됐는데
하루빨리 어머니님 아버지님
뵈어야 하는데
몇 년이 더 흘러야 뵈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같은 상에 같은 수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로 굳어버린 이 몸이
부서져 바람에 날릴 때야
통일 된다 하면
내 몸 하나 기꺼이 바치고
늙은 이 한몸 남은 인생동안
말하지 말라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잊고 살라하면
지금처럼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텐데...





통일 열차

인천 부일초 5 황선영

이산가족 웃음 신고
통일 열차 달려보자.
휴전선 철망 걷고,

녹슨 철도 다시 놓고
낡은 생각 버리고
벽찬 미래 꿈꾸며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힘차게 달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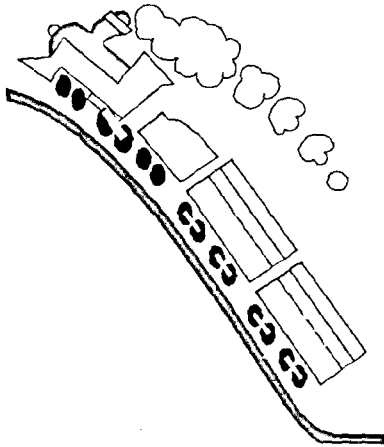
대동강의 유람선,
한강의 유람선에
아이들 가득 신고
즐겁게 달려보자.

풍산개야 진돗개야
함께 달리자



진달래 무궁화
꽃향기를 날리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
새 겨레 힘찬 기상
통일열차 달려보자





통일 열차

선학중 3 권다홍

연분홍 진달래가 만발한
이날은,

이날은 통일 열차가
출발하는 날

머리카락을 가르는
북녘바람

가슴벅찬 북녘 내음을
말아보자

샛노란 개나리가 만발한
이날은,

이날은 통일 열차가
달려가는 날

세월을 갈랐던
철조망



철조망 없는 대지를
바라보자

50년이란 긴긴 세월
가슴에 묻었던
고향 땅을 향해

50년만큼 늙어버린
얼굴들을 향해

그리움이 돋움 질 하는
이날은,

이날은 통일 열차가
출발하는 날.

모두의 벅차오르는
기쁨을 싣고

통일 열차가
출발하는 날.



장려상

이산가족의 소망


송도고 2 윤수익

황해도 증포의 어린 할배는
남으로 떠 내려온 작은 쪽배였다.
홀로 닻을 내리고,
그의 생(生)을 그 배에 담았다.
배는 커지고,
선원은 하나, 둘 늘어났다.

늙은 할배는
늘 돛을 달고 출항을 기다렸으나,
끊어진 바다에 묶여
길 잃은 돛은 나아 갈 수 없었다.
꿈꾸던 쪽배는 뱃머릴 고향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남몰래 흘린 할배의 눈물이 바다되어
끊어진 바다를 다시 엮는다.

둥근 바다를 기다리며...



● 대구광역시

- 준넝기 / 87
- 어떤 임중 / 89
- 소원 / 91
- 휴전선 까치집 / 93
- 멈추어버린 기차의 소망 / 96
- 칠모 / 99
- 통일을 꿈꾸는 아이들 / 101
- 돌아오지 못한 님 / 103
- 그 날 / 105

줄넘기

동덕초 5 김태연

줄넘기를 하자
콩콩콩
북한이와 줄넘기를 하자

내 맘대로 뛰다가 삼팔선 밟으면
어찌지, 어찌지?
가슴이 쿵쿵쿵

아니야, 아니야
내가 쿵!
밟아버리면
'아이고 무서워' 달아날거야.

줄넘기를 하자
콩콩콩
아쿠! 걸렸다

북한아, 잘 해.
줄넘기를 하자
콩콩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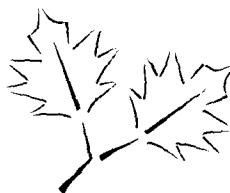


아쿠! 걸렸다.

북한아, 우리 같은 편할래?
그깟 삼팔선 훌훌말아
태평양에 던져 넣고
어깨동무하고 줄넘기 하자.

한반도를 힘차게 굴러보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늘까지 힘껏 뛰어보자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게

줄넘기를 하자
콩콩콩
너와 나, 통일이 되어!



어떤 임종

신명여중 3 박선해

나 아직 여기 살아있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이리도 슬피우는 이는 대체 누구요.
북에 두고 온 처자식인가
보고 싶은 산천인가
정작 서러워 울어야 하는 이는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할 내 백골인데
이리도 서럽게 우는 이는 대체 누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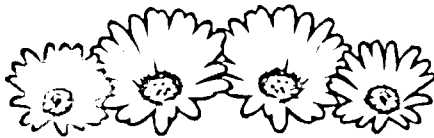
가슴이 갑갑하고
자꾸 숨이 가빠지는데
나를 부르는 이는 대체 누구요.
떠도는 백귀인가
굳어가는 육신인가
나 아직 잡지 못한 통일이
恨이 되는데
나를 부르는 이는 대체 누구요
나를 부르지 마시오.



어떤 임종

두고 온 처자식과
그리운 산천과
반토막 난 조국을 두고
나 이제는 가야할 때

알지 못할 서러움에
베갯잇이 젖어드는데
슬피우는 이 누구요
나를 부르는 이는 대체 누구요.





소원

시지고 2 김혜진

그날도 그 꿈을 꾸셨나봅니다.
가슴속 평생 한이 되신
공포와 한숨과 눈물은,
우리 할머니의 평생 한이 되셨습니다.

전쟁의 포화속에
푸른 꿈 가득한 어린시절을 묻고
남으로 내려오신 할머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어린시절 그 꿈들과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 잊지못해
몸져 누우셨습니다.

눈뜨면, 그날의 총소리와
눈 감으면, 마지막 손잡던 아우와의
혈연의 정이 끊어올라
주름지신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소원

할머니의 그리움만큼 돌아난
보름달이 파와 차던 날밤,
조출한 저녁 밥상도
다 비우지 못하고
세월의 흔적처럼
수국 꽃잎같은 웃음들을 접으셨습니다.

방안 가득
그 날 화약연기보다 매케한
향내 음이 피어올라
멀리멀리 고향으로 찾아가는 소리
“죽기 전 고향 땅 한번 밟고 가야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진한 사투리 잊고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 오늘
또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잊고 있던 할머니의 통일노래
다시 불러야 하는데...



휴전선 까치집

신서초 6 우경준

살붙이끼리 흥부리 맞대고 선
힘약한 휴전선
가시 돋친 철조망에

난데없이 나타난 까치 한쌍
남북 땅 마음대로 드나들며
까치집을 짓기 시작했다.

남과북 나뉘가지 물어다
이리저리 걸치고 엮어서
둥지 만들고

비 바람이 칠세라
북과남 흙 물어다
바람구멍도 찾아서 속속들이 다 막고

훨훨 평화스레 날개 펴리며 깹깹 거리며
자유로이 자유로이 집을 짓고 있단다.



50여 년 동안이나 원수되어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꼴이
하도 안타까워 이제는
저희들이 나서기라도 하겠다는 듯,

아무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괴상한 곳에 와서
조선 사람들이여, 좀 보라는 듯
남과북 통일의 집을
커다랗게 커다랗게 짓고 있단다

해마다 칠석날이면
돌맹이 머리에 이고 올라가
은하수에 오작교 놓아서,
서로 못 만나 가슴 태우는
견우와 직녀 만나게 해 주는
전설 속의 그 착하디 착한
까치들이기에



사람들이여, 보라는 듯
조선 사람들이여, 제발 좀
마음 고쳐먹고 서로 만나보라는 듯,

남북을 가르는
눈물어린 철조망에
까치집
까치집을 짓고 있단다.





멈추어버린 기차의 소망

감삼중 3 이왕근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선생의 본분은 가르침입니다.
저의 본분은 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본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앞을 막고있는 휴전선은
저의 본분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기차들은
가족을 싣고, 짐을 싣고,
잘도 달립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있는 힘껏
땅 끝에서 끝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멈추어버린 기차의 소망

이제는 멈춘지
반세기가 지난 전
단지 구경을 위한
기차입니다.

기차인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휴진선이 허물어져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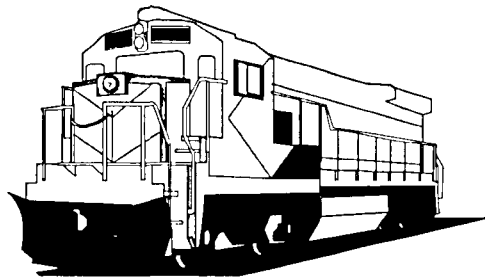
제 꿈은
곧 이뤄지겠죠...

대한민국, 이 땅에
이산가족이 있는 한,
간절히 통일을



멈추어버린 기차의 소망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 꿈은 이뤄질 것입니다.





철모

경북고 2 송준훈

행하니 구멍난 철모 위로
꽃씨 하나 사뿐히 내려앉아
어느덧
미연처럼 자리를 틀고
얼음장같은 철모 아래로
흐르는 마음에
달빛마저 외면했던
시린 가슴을 녹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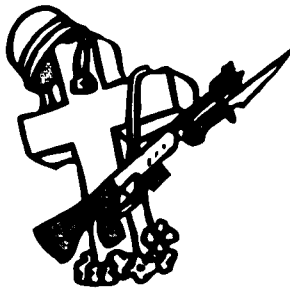
반세기
검붉은 생채기에
새살이 슬슬 돌아나면서
젓빛 미로로 얽혔던 한숨이
얽혔던 살덩이를 햇살에 풀어내니

낡은 철모 위로
젓가슴 같은 살진 바람이 불어와
남녘과 북녘에서
한 줌 흙들이 서로를 원하고



한 방울 이슬이 서로를 맺으면서
그리움의 꽃눈을 틔우니

뒷짐져 숨겼던
손톱을 앞으로 내이면서
원한이 찬송으로 잉태되고
집 나간 물길이 바다 품에 파고들 듯
마침내 반 백년 풍상에 살아진
철모는 햇살 아래 이제야 눈부시다.



통일을 꿈꾸는 아이들

진월초 6 이태현

내 이름은 북들이
대한민국 북쪽에 살아요.

미나먼 남쪽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마음이 따스하다는 것은 알아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친구들의 마음도 따라 오거든요.

공공 얼어붙은 북쪽 땅에도
남쪽 친구들의 마음같은
향기롭고 따뜻한
통일의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은 남들이
대한민국 남쪽에 살아요.

머나먼 북쪽 친구들



추위에 떨고
춥주림에 힘들어 해도
마음만은 착하다는 것을 알아요
TV속에 비친 눈망울은
순한 사슴 같았거든요.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빨리 이루어져
따스한 통일의 손길을
건네 주고 싶어요.

내 이름은 통일이
이제부터는
북돌이도 남돌이도 아니랍니다.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도 거두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열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통일의 어깨동무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웃음꽃만 활짝 피우겠어요.



장려상

돌아오지 못한 님

수성여중 3 배한나

진달래 꽃길 헤치고
가시 철망을 넘어
다시 돌아온다며
흔연히 떠난 그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달래가 수십 번 피고지고
그대가 떠난 진달래 꽃길이
날카로운 가시 철망에 짓이겨
눈물과 상처로 얼룩져도
다시 돌아온다던 그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했던 그대의
범의 기운어린 든든한 모습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 주고,
나의 상처를 감싸주던 그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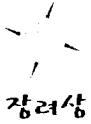


돌아오지 못한 님

이른 아침,
푸른 하늘과 새의 노래,
그대와 함께 해야 했던 꿈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건만…….

가시철망 아래의 진달래는
그 때의 여전한 붉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대를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 날

성서고 2 김정하

잠만 기다리면 온다

언제 오는데?
쫄메만 기다리면 온다

언제 오는데?
백 밤만 자면 온다

언제 오냐고
천 밤만 자면 온다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언 · 제 · 오 · 는 · 데?


백 밤을 자든 천 밤을 자든
끝없는 밤을 자도
그 날은 오지 않았다.



그 날

그리고 어느새 내 얼굴엔
그만 만 밤들이 깃들어 있다.





● 광주광역시

- 기차 / 109
- 통일동산에 서서 / 111
-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 113
- 멀고도 가까운 마음 / 115
- 통일의 꽃 향기여 / 118
- 통일이라는 당신의 소망 / 119
-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 121
- 힘찬 통일로의 길 / 123
- 평화의 문 / 125



기차

농성초 6 유수영

칙칙폭폭 칙칙폭폭……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경의선을 이어 놓은
희망호 기차를 탄다.

빛깔 고운 햇살과
도화지처럼 하이얀 하늘……
푸릇푸릇 무성한 6월의 나무와
초록빛 강은
사르르 사르르……
나를 꿈속으로 인도한다.

평화통일호 기차를 타고
힘차게 화음 맞추어
랄랄라 랄랄라 노래 부르며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간다.

조잘거리는 새들과
풀벌레들도
축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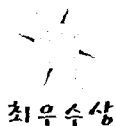


금강산의 아카시아 꽃향기와 함께
새 동무들과 압록강으로 향한다.

압록강의 금빛나는 물속에서
침병 침병 침병……
수영도 한다.

부~웅
힘찬 기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꿈에서 깨어
평화통일의 마음을 구름에 실어
두둥실 두둥실……
저 멀리 날려 보낸다.





통일 동산에 서서

일곡중 3 정다운

바람결에 들려오는
슬픈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형제
뜨거운 피눈물을 보셨습니까?

반세기만의 어려운 걸음
얼싸안고 함께 하셨습니까?

여기에, 나는 보았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안타까운 반쪽 하늘을
그리고 대지를…….

물보다 진한 핏줄을
펜보다 약한 총칼이
갈라놓은…….

이 역사, 지도 속에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됨을 보는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손 내밀면 잡힐 듯
소리 지르면 들리 듯
한 번 뛰면 밟을 듯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똑같은데.

가지 못하고,
밟지 못하여
그리움을 마냥 쌓으며 가는데.

얼마나 지나야 볼 수 있을까?
얼마만큼 더 아파야 하나가 될까?

나는 오늘도
절망의 동산에서
북녘을 향해
희망의 노래를 불러 봅니다.
통일을 소리쳐 불러 봅니다.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체고 3 김민수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져있어 가슴 아파하는
오직 둘이 하나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두 손 모으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의선·경원선 철도가
하루 빨리 연결되어
녹슨 철마도 큰 소리치며
달리길 비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북녘 소식만
귀 세우고 한숨짓는 할아버지
미소지으실 날 기다리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이산가족들도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오가길 비는
그리고 우리 북녘 동포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라 믿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녹슨 철조망 이젠
싹둑 끊어버리고
그냥 남이와 북이가
떡도 돌리고
각종 체육대회도
같이 하길 바라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북녘 친구들과
이마를 마주 대고 한 책상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기를 바라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마음

태봉초 6 송옥희

저기 벽만 넘으면
볼 수 있을 얼굴들
그리워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한번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새파랗게 멎든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웠던 마음은
53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깝기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잊을 수 만든 없던
기억 속의 사람들...



멀고도 가까운 마음

이별의 말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멀어져가던 모습이 떠오르겠지요.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겠지.”

아픈 마음을 달래며
오늘 하루도
기꺼이 참아 낼 그 모습

그들의 마음은
직접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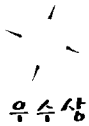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남·북 이산가족들의 행복한 만남



멀고도 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다.





통일의 꽃 향기여

조대여중 2 곽현지

어서오세요
화려한 봄꽃으로 오세요.
봄비 젖어 떨어져도
숨 가쁘게 오세요.

기다리는 시간 애타서
발 뚱뚱 구르는 마음

어서오세요
해맑은 웃음짓고 오세요.
얼굴 가득 눈물 번져도
가슴 벅차게 오세요.

온 누리에 퍼진
통일의 꽃 향기여.

통일이라는 당신의 소망

전남여상 2 배송하

푸른 실구름 위로 춤추는 날개옷
두 눈 저 편 부서지는 푸른 물결엔
두 손 가득 마디마다 곱게 물든
그리운 당신의 땅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머금은 그 빛은 따뜻하기만 한데
밀물치듯 밀려오는 그리움은
당신의 트이고 목마른 세월의 주름을
붉게 눈시울로 적셔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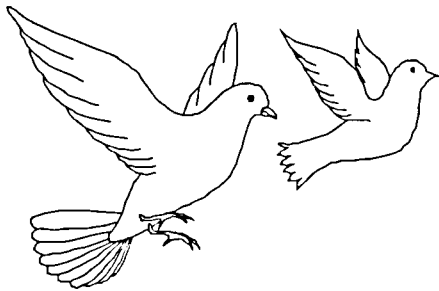
쪽배 띄운 저 강물너머
두고 온 자식새끼, 놓쳐버린 그 손엔
한없이 두고두고 후회의 눈물로
꼭꼭 눌러오는 그 사무침은 대 못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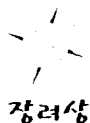
대한민국 한반도
아무렇게 그어버린 경계선 사이
소망의 한 켠, 빛바랜 그리운 이들을
되새기며 불러봅니다.



풍월이라는 당신의 소망

어머니,
그러나 이제 걱정마세요
당신의 상처난 등허리를
궤어주고 쓸어줄 소망의 씨앗
한반도 가득 매꿀
당신의 푸른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금당초 5 송유진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내 지우개로
'쓱쓱 쓱쓱'
지워버리고 싶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내 가위로
'싹둑 싹둑'
자르고 싶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큰 붓으로
'하얗게 하얗게'
색칠하고 싶다.

어서 따뜻한
통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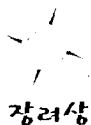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붙어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
지웠으면 좋겠다.

통일 바람아,
힘차게
빨리
붙어라!





힘찬 통일로의 길

두암중 3 조효진

반쯤
잘려간 날개
하얀 비둘기는 날고 싶다.

높은 비상을 꿈꾸며
옛 이야기 흘러가던 압록강

멀고 먼
만주 땅에
힘센 기상이 돈다.

위대한 역사를
한 구석의 그 날의 아픔까지
모두 가슴에 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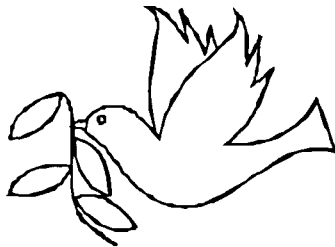
또다시
하나된 역사로
함께 나아간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몸과 마음의 끈을
하나로 다시 이으며

길고 험했던 순간
하얀 비둘기는
비로소 다시
더 먼 곳으로

힘차게 힘차게
파아란 하늘을
높이 날아간다.





평화의 문

서강고 2 최지은

문이 열린다.
반세기 동안 묵었던 때가
벗겨지는 순간이다
누렇게 녹슨 너와 나의 경계선이
싹뚫 끊어지는 순간이다

소리가 들린다
투쟁속에 묻든 핏바랜 외침이 아닌
평화의 노래를 나는 흥얼거린다

마음이 열린다
어린양의 가슴속에 있던
영겨있던 매듭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순간이다
감칠맛나는 이 시원함에
나는 그만 한 맺힌 울음을 토해낸다


내일이 보인다
눈물로 젖은 두 조각 나버린 땅이
함께 이어지고



고통으로 드리워진 엇갈린 만남이
서로 교차한다.

평화가 피어난다
투쟁이라는 악이 시들고
너와 나의 께안음에서
내일의
빛이 피어나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며시 스며든다





● 대전광역시

- 우리는 한 형제 / 129
- 이제는 통일 / 131
- 탄식 / 134
- 하나된 우리 / 136
- 통일의 씨앗 / 139
- 침묵하는 시계를 소원한다 / 143
- 지혜의 햇불 들고 / 144
- 남매의 꿈 / 147
- 민들레 / 150



최우수상

우리는 한 형제

대전 복수초 6 박병선

아카시아 향기 남풍타고
북으로 간다기에
우리는 한 형제니
모여 살자고
소식을 보냈지요.

성난 태풍 폭우가
북으로 간다기에
모두가 내 형제니
살살 불어달라
두 손 모아 빌었지요.

고운 단풍 북풍 타고
북에서 온다기에
두 팔 벌려 안으러
뛰어가 보니
하얀 서릿발에
고추바람 불었어요.



우리는 한 형제

봄에 갔던 기러기
다시 돌아온다기에
형제 사정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츄고 배고파
다시는 아니 간대요.

반 백년 애타는 맘
보내다 지쳐
6천만의 꿈을 안고
이제 서로 만났으니
군불 지핀 따슨 방에
형제들 모여
이야기 나누는 날
널 모래졌지.



이제는 통일

동방여중 2 김진

“까악 까악”
그리운 남이 온다던
까치 소리인데도

하늘을 울리는 총메아리
붉게 물든 깃발을 들고
발을 맞추어 가는
친구야

두갈래로 갈라진
자작나무의 눈처럼
사이로 사이로
너의 이름을 불러 본다.

어느새 손 위엔
50년의 긴 시간이
그 기나긴 기다림으로
광택의 진주가 되고



이제는 통일

아픔을 남긴
서해 교전과
잠수함은
철조망만 무성해진다.
그래도 그래도
강가의 둥근돌
길게 길게 뻗어 흘러오는 강줄기 속
이쁜 조약돌 집어
너에게 전해 주련다.

그 높다란 깃대 잡던 손을
나에게 벌려 다오
친구야
이제 나와
발을 맞추어 가자
이제
사나운 철조망을 넘어서



이제는 통일

홀러홀러 강물속
더불어, 미꾸라지 잡을날
나는 오늘도 꿈꾼다.

“까악 까악”
그리운 님이 온다던
까치 소리.



탄식(歎息)

대전외고 1 이진주

이 곳은 -
완공(完工)되지 못한
불완연(不完全)의 나라.
향연(饗宴)의 흥취(興趣)조차
절반의 몸뚱이를
뚜옥 떼어
내동댕이질 한다.
-모난 화석(化石)이 되어
파고든다.

이 때에
염원은 가시관이 되어
머리에 앉혔다.
완연한 하나는
우리네들 속 타자(他者)로
존재하고
마는 것인가.

이러함에도
왼쪽 날개를 빼앗긴 새는

냉벽(冷壁)을 딛고
위태롭고 거룩한 비행(飛行)을
시도하려
하나나-

아아- 고갯만 넘기면
태초(太初)와
똑같은 대지(大地)가
아니더냐.





하나된 우리

대전 매봉초 6 이유진

백의 민족 하얀 천에
금수강산 굽어보며
차르락 차르락
수를 놓아보자

웅대한 백두산 천문봉
안개 속에 고요하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
붉은 빛 한줄기에
천지가 열린다

붉게 넘실대는 태양은
곧게 뻗어나가
금강산 굽이굽이 일만 이천 봉
오색빛깔로 물들이고
휴전선을 훌쩍 넘어
남으로 내달리는구나



보아라
천지의 불꽃이 설악에도 닿아

붉은빛 눈이 부서
붉은 바위 아우성치고
그 고향에 천하가 진동한다

드디어 한라산과 맞닿아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으니
잠들었던 호랑이 '어흥' 울부짖고
삼면의 바다 파도가 출렁인다

느껴라
하나됨에 온 판도강산
승리의 함성
감동의 물결이
넘실대는 구나



하나된 우리

뺨치라
내달려라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호랑이
하나로 수놓아진

아! 반만년 역사여!





통일의 씨앗

대전여중 2 이아람

땅 속은 감감합니다.
감감한 땅 속에
작은 씨앗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햇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씨앗은
왼쪽 땅으로
오른쪽 씨앗은
오른쪽 땅으로
각각 다른 쪽 땅으로
새싹을 틔우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싸우게 되었고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기만 했던 씨앗이
더욱 더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씨앗은 둘로 쪼개져서
오른쪽 왼쪽
그 어느 쪽으로도
싹을 틔울 수 없었고
예쁘고 화려한 꽃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의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듯
반으로 갈라진 달걀에서
병아리를 기대할 수 없듯



싱그러운 싹을 틔우려면
찬란한 꽃을 피우려면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해
우린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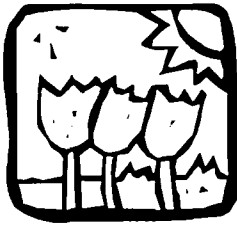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끝에
그 끝없는 아픔과
떨어지는 눈물 끝에
그들은 아니, 그 씨앗은
땅을 뚫고
연두빛 미소를 띄웠습니다.



통일의 씨앗

그리고,
세상에서,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마침내 피워냈습니다.





침묵하는 시계(時計)를 소원한다

서일고 1 서동원

어둠이 깔린
적막한 방안의 한 쪽 벽에 붙어서
짜깁이며 울부짖는
시침(時針)으로부터
야윈 분침(分針)의 몸뚱아리가
멍울진 가슴에 눈물 떨구고 떨어져 간다.

똑딱똑딱 얼마나 수없는 회전을 하며 어지러웠는가.
고개 위로 헛덩어리 얼굴 내밀 때
시침과 분침의 합일의 순간.
합성과 우렁찬 통일의 노래 울렁이고
고사리 손의 딸아이는
시계 바늘을 멈추었다.



지혜의 햇불을 들고

대전 화정초 5 방익준

북한의 지도자들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대요.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일어나게 하겠대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다 막혔어요.

쌀도, 돈도, 옷도 보냈는데
비료까지 보냈는데
슈퍼 옥수수도 심어줬는데
따뜻한 형제에도
함께 넣어 보냈는데...

우리가 싸 보낸 사랑은
키워가던 희망들은
끔찍한 핵무기 되어
우리 가슴 겨누고 있네요.



지혜의 햇살을 들고

어쩔 테냐는 듯
이것 저것 더 내놓으라며
때 쓰고 험박하는 북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우리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다가
사랑도 아닌, 희망도 아닌
우리를 위협할 근심덩이를
더 많이 보내겠다 약속했지요.

어둠은 짙고 길은 험해
어렵게 내딛는 걸음 걸음이
길인지 진창인지
해매게 하지만

지혜의 등분
높이 밝혀 들고
진창길 수렁에서
헤어나야 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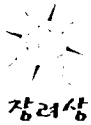
지혜의 햇볕을 들고

어두운 북녘 땅에도
길 밝혀 주어야 하겠지요.

통일로 가는 길이
힘난하지만
다리에 힘 꼭 주고
걸고 또 걷다 보면

백두산에도 한라산에도
월드컵 때 보다 더 큰
통일의 함성이
메아리칠 날 오겠지요.

마지막 분단국이 무너졌음을
온 세계에 알리며….



남매의 꿈

동신중 2 강동광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안은 채
두 손을 꼭 잡은 손 사이로
수십년의 통곡이 흐른다.
북녘의 오빠와 남녘의 누이는
그렇게 상봉을 했다.

고통의 세월 전에
남매는 소박한 꿈을 안고
뒷동산 밭둑에서
오빠가 꺾어준 짙레꽃을 먹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뜻하지 않은 전쟁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남매의 꿈은 사라졌다.

고통의 세월 동안
오빠는 북녘에 누이는 남녘에
그리움과 아련함을 삼키고



상봉의 그날을 꿈꾸며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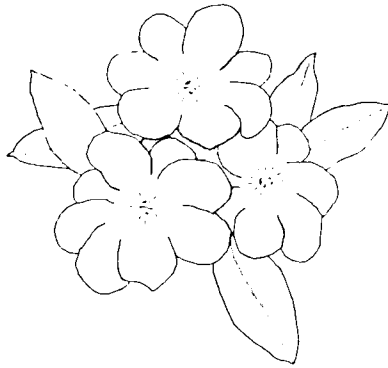
고통의 세월 뒤에
마주친 두 얼굴엔
이산의 그늘이 서려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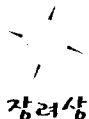
침묵 속 두 눈 속엔
통한의 눈물이 담겨있다.

짧은 밤 길게 늘려
지우개를 들고
그리움과 눈물을 지워본다.
연필을 들고
다정스레 남매를 그려본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수없이 말해보지만….

남매는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고
두 손을 흔든다.
멀어져간다.





민들레

대전 둔원고 1 이경선

노파는 들판 위에 섰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 위에
노오란 기억을 가진 하얀 것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노파는 그 하얀 것을 꺾어, 후우~
작은 바람을 불어냈다.
50년 전 소녀 시절의 수줍은 기억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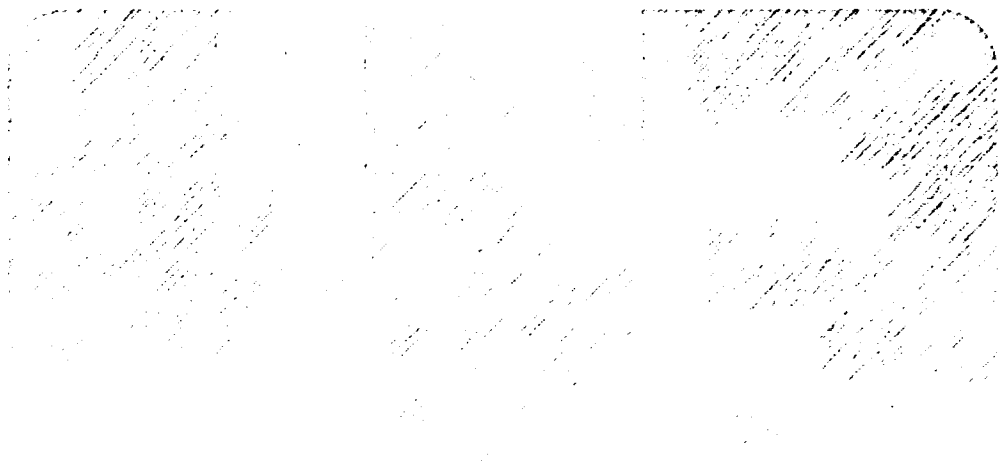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하얀 것들은
깊고 검푸른 강 너머의
또 다른 끝없는 들판으로 날았다.

노파는 친친히 가는 팔을 뻗었다
슬프게 주름진 손
강 너머 들판에 닿을 듯하다.
함께 가고픈 마음 몰라주고
무심히 날아가는 하얀 것들처럼.

노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소원을
멀어지는 하얀 깃들에게
두 손 모아 실어 보낸다.





● 물산광역신

- 한 나무의 다른 가지 / 155
- 통일외 문 / 158
- 북녘을 바라보며 / 159
- 할머니의 친구 / 162
- 파랑새 / 164
- 1950년 6월 25일의 단(斷) / 166
-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 168
- 창문하나 / 170
- 도라산에서 다시 만나리 / 172

한 나무의 다른 가지

명정초 5 손성민

단군신화에 뿌리두고
어머니 웅녀의 품에서
싹 틔운지 5000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름드리 나무의 나이테를 벗기면
살갓던 조상의 이야기가 가득하네

신라의 통일 이후
언제나 하나였던 이야기도,
힘없이 무너져
아프게 몸부림치던 일제시대 이야기도,
서로에게 총부리 들이대던
6·25전쟁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들려주네

한 쪽은 시원한 바람이 좋아
북을 향해 가지 뻗고
한 쪽은 따뜻한 해가 좋아
남으로 가지 뻗어



양상하고 볼품없는
38선의 나무

뿌리가 전하는 양분을 받기엔
너무 멀어진 나뭇가지
외면하면 할수록
양상해져 가네

이제 막 자라나는
새순부터 시작하자
외면 말고 마주보며
손 내밀고 악수하자

한잎 한잎 내민 손이
남과 북을 메우고
오천년의 나무답게
무성한 잎 드리우면
가지는 달라도
아름드리 한 나무



한 나무의 다른가지

같은 말 같은 조상
처음처럼 한 나무





최우승상

통일의 문

청량중 3 김나선

통일로 가는 작은 발걸음
닫혀있던 칠조망의 빗장을 열고,
통일로 향한 힘찬 외침은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눈물로 얼룩진 하이얀 상흔(傷痕)
그리움이 바람 되어 날리운
민들레 노오란 씨 흩뿌리고

애잔한 구름 굽이굽이 돌아
철망사이 살며시 고개 내밀며
작은 빗물되어 떨어진다.

희망과 생명의 초록문 틈
평화의 대지엔
비취울 밝은 햇살로
한 송이 작은 민들레 꽃 피우리다.



최우수상

복녃을 바라보며

현대청운고 3 정미애

오늘도 회색빛 종이 위에
글은 실린다
누구의 글이더냐
가족을 찾습니다

돌아갈 길 조차 잊어버린
어둑한 발걸음은
그러나 오래된 기억으로
너를 찾으려 한다

저 끝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파 어린 가슴이여!
우리는 기억한다.
여과없이 닿아오던
그 체온들을

마주친 손 끝으로
막아서는 무엇이 닿았던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목녘을 바라보며

언제고 가 닿아야 할
단 하나의 곳,
오로지 그리움 만으로
목이 메여 터지도록
너를 부른다

푸르게 피일 하늘 아래로
너의 온화한 눈매가
미소짓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그로부터 오는 것일게다.

너의 발 끝에 서서
바람을 맞는다
어찌면 저편으로부터 오고 있을
머리 위로 부는 바람



북녘을 바라보며

검은 산맥을 넘어
뜬 무지개 사이로
흰 비둘기 풀어 풀어
하늘 길을 찾아간다
북녘으로 가는 길





할머니의 친구

삼동초 4 우경훈

우리 할머니는 친구가 없나봐.
항상 우리랑 놀려고 하시니깐.

우리 할머니는 친구가 멀리 있나봐.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계시니깐.

나는
학교에 친구가 많은데...
그리고 동생도 있는데...

할머니의 친구는
북한에 계신대.

할머니가 빨리 친구들을 만났으면...
그래서 나처럼 좋은 곳에도 놀러가고
균것질도 하면 좋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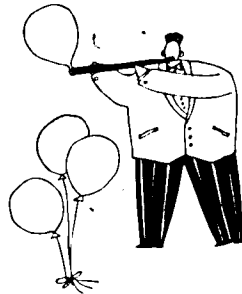
할머니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섭게 생겼을까?



아니면 우리 할머니처럼
인자하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다.

내가 너무 보고 싶은 할머니의 친구
할머니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궁금하실까?

우리 할머니가 빨리 친구들을
만나려면...
동일이 돼야 할 텐데...





우수상

파랑새

성안중 3 이은경

언제쯤이면 그대와 함께 할 수 있을는지...
그대는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계신데,
우리 사이에 놓인 벽 하나만 허물어버리면,
그대는 거기 그대로 가만히 계신데,
왜 우린 수십 년을 함께 하지 못한 채,
서로만 원망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며,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별해 온 건지...

우리 앞에 놓인 깊고 매서운 강 정도야,
건강한 두 다리가 있는 이상 못 건너갈쏘냐!
우리 앞에 놓인 높고 거대한 산 정도야,
튼튼한 두 발이 있는 이상 못 넘어갈쏘냐!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우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하나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더라!

그대와 나, 다시 하나 된다면,
그대와 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헤어짐 따윈 없을 것을 맹세하오.
그대에겐 내가, 나에겐 그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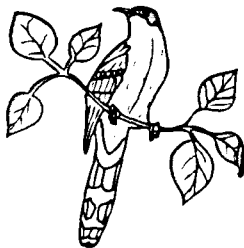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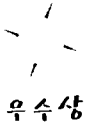
파랑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니,
우리 다시 하나됨이 어떠한가.

그대여!

나는 오늘도 그대를 그리며,
그대와 하나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이 푸른 새벽에 북녘 하늘만 바라본다네.
하늘에는 자유로운 파랑새 한 마리만,
그대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네.
내 바람을 싣고서,
그대가 있는 곳까지 잘도 날아가네.





1950년 6월 25일의 단(斷)

울산고 1 차지웅

푸르른 새벽
붉게 노을지고

웃음 가득 그 미소
굳어진 채 슬피 우네

70갑자 강물이
마음 앞에 끊어지고

철마는 쉬지 않고
기적소리 요란히

대지를 박차고
하늘 위에 머문다.

아아, 누가 알았으랴
한 가지에 두 마리 새 지지킬 줄은

태백(太白)은 푸르러지고
한라(漢拏)는 고요하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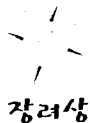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의 단

백두(白頭)는 태고 그대로
천지를 굽어살피니

슬프도다
흰 소맷자락 눈물로 적시네.





장려상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옥산초 5 송은별

부모님이
나에게
이 땅의 빛을 보게 해 주신 날
11월 23일

이번 생일엔
북쪽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을 담아
높고 넓은 하늘에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요.

얼굴도, 목소리도
무엇하나 알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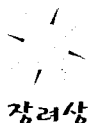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나라의 허리끈이
풀어지는 날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빛
뜸뻑 받으며
다시 태어날 거예요.

간절한 내 소망이
북쪽 친구들에게
닿길 바라며
오늘도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요.





창문하나

울산 제일중 3 박용빈

들에서 소먹이고
시내에서 몸 담던 그때까지는 하나였는데…
총알 빗발치는 전장에서
창문과 덧문 사이에 몸 숨기며
서로의 다친 몸에 기대어
싸우던 우리였는데

태극기 들고 만세 운동하며
한반도를
태극물결로 만든 우리였는데

사상이라는 두 글자는
좁은 한반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이 되었고
한 몸, 한(韓)의 기상을 자르는
상처로 남았음을

북(北)에서 남은 이는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끊어진 허리 아래의
남(南)녘 가족을 부르며 애타게 흘린

눈물이 강이 되어서 흘렀고,
남(南)녘의 가족은 하염없이
북(北)녘으로
'북쪽, 북쪽' 이며 날아가는
소쩍새를 보며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며
우리 함께 소 물며
발을 갈 일도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세계무대에 나갈 일도 멀지만은 않았으리라...





도라산에서 다시 만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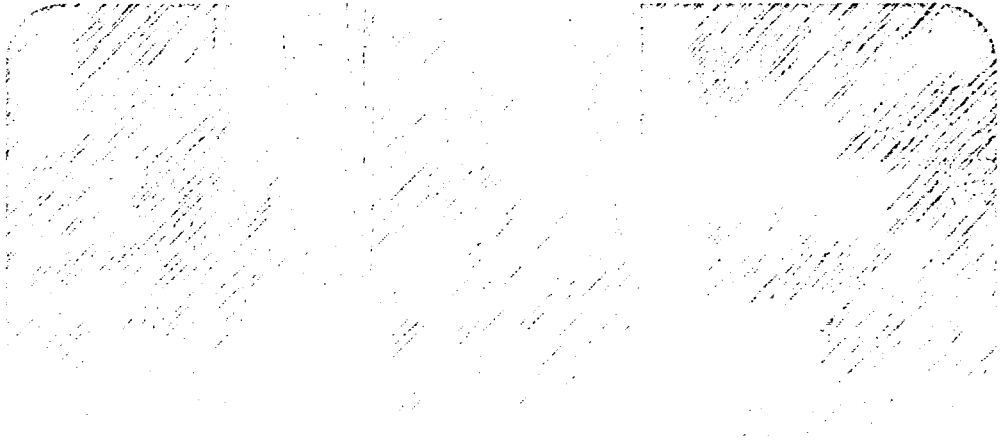
울산예고 1 김민영

해가 토해낸 붉은 혈이 철조망 사이로 스며들어
그들만큼이나 사연 많은 하이얀 비둘기 적시고
굳어버린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애절함에……

세월이 가져온 노인의 주름마다
가릴 수 없는 내 혈족의 그리움이 어리어
보는 이마다 저미어오는 가슴을……

내일이면 만날까 험겨운 기다림도
하루 밤 지나면 또 다시 내일인 것을
만월에 비친 아련한 님그림자 보며……

아아
겨누던 총부리에 꽃피어 오르는 날 다시 만나리



● 경기도

- 통일 열차를 기다리며 / 175
- 한 걸음 한 걸음 / 177
- 6월의 휴전선 / 179
- 열리지 않는 문 / 181
- 그 길을 / 183
- 화합의 그 날 / 186
- 친구에게 / 188
- 그 길이 이어질때까지 / 191
- 북으로 연을 날려라 / 193



통일 열차를 기다리며

파주 통일초 4 이승미

통일체험학습으로
도라산 역에 갔어요.

대합실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역 안에
'서울·평양 방면 타는 곳 ⇄' 이라고
안내판이 크게 써 있었어요.

정말로
평양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평 났어요.

북한 고향을 그리워 하다가
제작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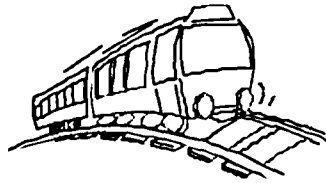


통일 열차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고향 가실 수 있는데...

나는 사람들과 같이
개찰구에 가서
줄을 섰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대신
내가
통일 깃발을 날리며
힘차게 달려가야겠어요.





최무수상

한 걸음 한 걸음

수원 율현중 1 정경진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는다.
가로막는 철조망을 걷고
앞을 트고 길을 놓으며
조심조심 나아간다.

금강산에 가고
헤어진 가족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차가운 땅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
한 걸음 더 보탠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맞이하며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인 3각 하듯
흰 옷 입은 백성이
모두 같은 길을 걸으며
말과 뜻이 통하고
몸짓과 손짓을 알 때

남북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이해하니
호랑이가 되어
훔쩍
큰 걸음을 떤다.

둥, 당, 둥당
이 땅에 북소리
울려 퍼질 때
어느새
우리는
통일이다!

6월의 휴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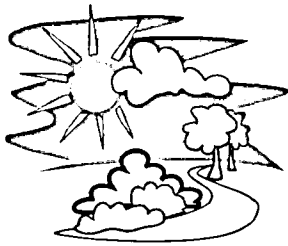
고양 정발고 1 오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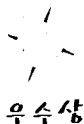
친구여! 너는 6월의 휴전선에 가보았는가?
지금 그 곳엔,
인간의 죄악으로 얼룩지지 않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가 숨쉬고
남쪽의 따뜻한 바람과
북쪽의 시원한 바람이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서로 만나 어우러지며
맑은 샘물이 솟아 흘러 서로 의심의 발을 씻어 주는데
너는 들었는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한반도를 향하여 연주하는 신비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너는 6월의 휴전선에 가 보았는가?
지금 그 곳엔,
태고의 전설과 통일의 숨결이 울렁이고
전쟁의 상처가 아문지 어언 50여 년
우리 나이보다 몇 곱절의 세월을 흘러
지금은 비극의 슬픔보다 통일의 염원이 더 뜨거운 곳
너는 보았는가?
통일과 사랑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휴전선 너머를!



6월의 휴전선

친구여, 지금 휴전선 가까이 나와 함께 가보지 않으려는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
서로 향한 총부리를 거두고
이육사의 청포도처럼 알알이 익어가는 생명과 사랑을 안고
이 땅의 21세기 통일 한국을 꿈꾸며
지금 함께 가자
6월 태양이 타오르는 휴전선으로...





열리지 않는 문

수원 곡선초 4 인선우

삐거덕 삐거덕
열릴 듯 열릴 듯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 문
왜 그럴까
저 뒤에 누가 있길래
이리도 문은 열리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열어도
아버지가 열어도
열리지 않는 문
포기할 만도 한데
기어코 열겠다는 저 문은
나에게 어떤 문 일까

저 문 안에는
우리의 반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찢줄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문이 열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빗장으로 걸어 잠근 문은
이제 혼자 힘으로
열 수 없나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열린 가슴으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굳게 잠긴 철문을 열고 나와서
물이 물을 만나듯
바람이 바람을 만나듯
한 몸뚱이가 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그 길을

부천 중흥중 3 김 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짜 없는 외기리기 되던 날
다른 새들 떼 지어 가는 소리는
한바탕 축제였지요
어제 넘어간 금강산은
참 힘에 부쳤습니다.
지금은 함께 날 수 없다지만
내일이면 더욱 탄탄한 부리, 넓은 어깨로
나를 밀어 올려줄 것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쓸쓸함을
갈라지지 않은 이 땅에서
등 돌린 우리
치마만 입고 서있는 것처럼
부끄럽고 가냘픈 모습
그러나 자꾸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 약속만 합니다.



그 길을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때이른 기쁨을
바라볼수록 깊어가는 열정
밤을 뒤척이는 기다림
지금은 만질 수 없다고 하지만
내일(來日)처럼 다가오는 설레임
먼 길에서 오시는 님 마중처럼
옷 매무새 안 다듬어도
먼저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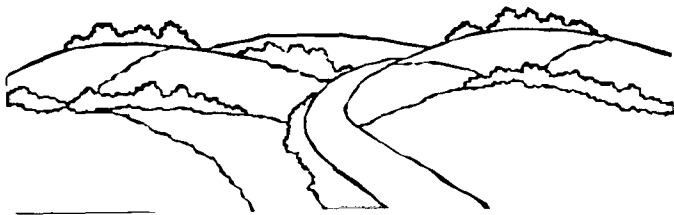
햇빛 한 줌 없던 그날
들릴 듯 말 듯 했던 아가 울음이
이제 굵고 묵직한 저음되어
더욱 깊게만 울립니다.
그의 늙은 어미 손잡고
빙빙 돌아가는 춤사위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한 몸인 그 날로



그 길을

되돌아가 다시 걷고 싶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다 하고
보고 싶었다는 눈인사 하고
바로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화합의 그 날

이천고 3 김석훈

산새도 울지 않는 아득한 언덕 저편에
대지를 휘어 감는 고요한 적막감만이

처음도 끝도 아닌 시작점에 걸터앉아
반백 년 전 그 날의 사진들을 펼쳐 놓고
그리움에 오염하며 흐느껴 울었다

천지에 진동하는 백두 자락 포효소리에
못내 아쉬운 듯 뒤돌아 외쳐보지만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은 아득히 먼 미지의 세계

차디차고 냉혹하던 시커먼 총구 끝에서
작열하던 새빨간 화약의 내음새가
곱게 핀 민들래의 향기 속에 스며들면

흘날리는 바람타고 방방곡곡 널리 퍼져
삼천리 금수강산 울긋불긋 꽃피울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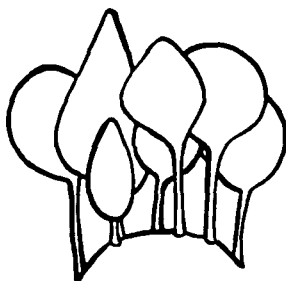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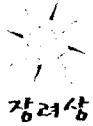
구름으로 드리워진 금빛 실선 한 올 한 올
냉기 도는 북녘 들판 따스하게 내리쬐면

얼어붙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철석날의 벽찬 감동 다시 부활할지니

어깨에 짊어진 짐 모두 풀어헤치고
찬란한 서광 앞에 환희를 맞으라

말발굽 힘찬 소리로 만주벌판 내달리던
그 날의 벽찬 감동 다시 온 날이 있으리라





친구에게

의정부 효동초 6 김하은

푸르른
하늘높이
박차오르는
새에게

나의 마음을
살어보낸다.

금강산을
꿈꾸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두 손 공손히 모아
하늘을 향하여
고개 숙인다.

훨훨 자유로운 새처럼
백두산이야, 한라산이야
마음껏 날아다니는



친구에게

그 날이 빨리 오기를.

한 핏줄 나는
북녘 땅
친구들아,

우리는 동일한
꿈나무란다.

잔잔한 물결 이는
강으로
두둥실
떠가는
조각배에게

나의 마음을
띄워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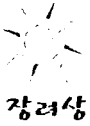
아름다운 우리나라
갈라놓은

철조망 걷어내고
압록강이야, 섬진강이야
마음껏 떠다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한 형제인
북녘 땅
친구들아,

우리는 하나 된
새 나라의 주인이란다.





그 길이 이어질 때까지

파주중 3 황다정

한번도 잊어 본 적 없던 그 길
곱게 핀 진달래마저
니것 내것 나누어버린
녹슨 철조망에
잘려진 철길

꽃피고 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고향
눈물로 불러보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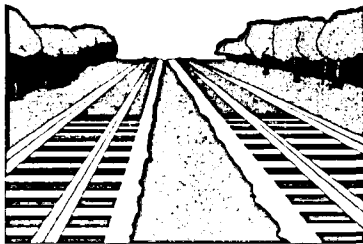
그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이어질 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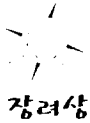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눈물 닿는 그 곳까지
거침없이 달리리라



그 길이 이어질 때까지

그 길,
치절하게 우리를 갈라놓던
날카로운 철조망 허물고
서로에게 달려갈
그 길이 이어질 때까지





북으로 연을 날려라

분당고 2 이정현

아이야,
하얀 비둘기 연을 날려라
때 마침 남풍이 부는구나.
오늘이 아니면
언제 불지 모르는 바람이다.

아이야,
기인 열레를 설레설레 풀어라.
때 마침 하이얀 학이 나는구나.
오늘이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이다.

삼팔선의 쇠붙이는 걱정일랑 말고
산 너머 북으로 북쪽으로
연이 북에 닿을 수 있게
아이야, 열레를 돌려라.



북으로 연을 날려라

흑여나 날던 연
총부리에 얽혀 휘감기어든
무서워 말고
등 뒤에 감추은 꽃을 던져라.

흑여나 가던 연
철조망에 걸려 얽히어든
뛰어가 쇠붙이에 입김을 불어라.

처음 보는 네 동무
얼굴을 마주하고 호호호호 불어라.

때마침 남풍이 부는구나.
아이야,
하얀 비둘기 연을 날려라.



● 강원도

- 어른들은 믿을까? / 197
- 통일이라는 조각 맞추기 / 199
- 칠마는 달리고 싶다 / 200
- 할머니의 수저집 / 202
- 내가 새라면 / 205
- 축제 / 207
- 통일의 바람 / 209
- 물 / 210
- 금강산 / 212

어른들은 믿을까?

황성 성북초 6 오현민

변쩍 변쩍 축구화도 컴퓨터도
가지고 싶지만

군침도는 피자, 케이크도
잔뜩 먹고 싶지만

미국으로 일본으로
여행도 가고 싶지만

복권에 당첨되서
억만 장자도 되고 싶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원있다면
어른들은 믿을까?

한반도 몸 깎 조이던
철조망이 사라지기를

철조망이 사라질 때
피 한방울 데리고 가지 않기를

어른들은 믿을까?

이뻐 드러낸 상어갈던
핵무기가 사라지기를

북한 친구 남한 친구
어깨 동무 같이 웃기를

이게 우리 소원이라면
어른들은 믿을까?

자가용으로
백두산 놀러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백두산에게 아침 인사할 수 있는 것

비둘기가 통일 소식
물고 오는 것

이게 우리 소원이라면
어른들은 믿을까?

통일이라는 조각 맞추기

신남중 3 손혜선

통일이 되는 일은
남북이 하나되는 일

남북이 하나되는 일은
몇 개인지 모르는
조각을 맞추는 일

힘들다 하지만
모두들 하려고 하는 일

통일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면
몇 개인지 모르는
조각들은 하나 둘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다.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면
그것은 바로
통일된 우리나라!

철마는 달리고 싶다

원주여고 2 권유선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저 분단선 철조망을 넘어
피보다 붉은 소망으로 염원하노니
백두산이여,
험한 산줄기 끊긴 후 멈추어
이젠 한숨 속에 녹슬어버린
내 품안으로 오라.

한민족 반만년의 얼을 깨뜨는,
힐떡대며 달려온 우리의 지친 심장을 찌르는
저 철조망을 넘어
너에게로, 그토록 바라던 너에게로
나는 달려가리라.

너는 나의 어제.
거울과도 같은 눈으로 미래를 관조하여
나의 어제인 너를 감싸 안으리.
갈리어도 찢겨져도 다시 없을 형제여,
나의 형제여.



칠마는 달리고 싶다

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오십 여 년 전, 광복의 푸르른 물결 가라앉은
이 한반도에 이 조국강산에
겹겹이 쌓아왔던 울음을 토해
기적이라 일컬어질 눈물을 흘려내어
너에게로 닿으리라
너에게로 닿으리라……

꿈에서도 미칠 듯 그리웠던
이제껏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송두리째 부둥켜안고서
호느끼련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호느끼련다.
백두대간 곧게 뻗은 줄기 따라
속 시원히 뚫린 별판 마음껏 달리며
하나였던 옛적 함께 꾸었던 꿈을 찾아
나의 경적을 울리리라…….

할머니의 수저집

영월 문곡초 5 김병선

내가 태어나기
오래오래 전
우리나라가 두 동강 나고
우리 할머니 마음도
두 동강 났습니다.

함경도 청진 고향땅 두고
전쟁의 소용돌이 뚫고
우리 아빠 업고
큰 고모 끼고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신 길,
눈물로 적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두 분이
일귀넌 나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
보고픈 친척들 얼굴그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지센 밤,
어여쁜 수저집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슴에 상처 안고
지낸 세월,
어찌 눈 감으셨을까?
이산가족 찾기에
한 번 끼지도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흘러보낸 시간.

할머니,
남북이 하나되어
얼싸안을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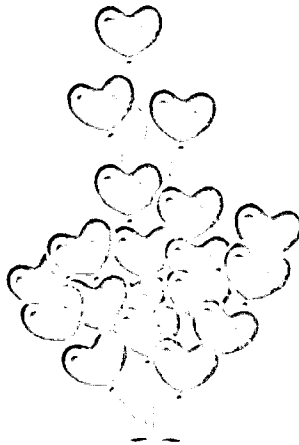
할머니, 오색 실 꿰어
곱게 수놓으신
친척들 수저집
그 유품 잘 간직하여
통일의 그날 전해 드릴게요.

무궁화, 사슴, 구름, 거북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처럼



할머니의 수저집

우리들도 함께 땡굴며
진짜 한 민족 한 핏줄 되어
활짝 웃을 겁니다.





내가 새라면

마차중 2 엄애경

내가 비둘기라면
휴전선 너머로 날아가
서로의 소식을 알려주는
통일 우체부가 되겠네

내가 종달새라면
남과 북의 애타는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로 달래 주겠네

내가 닭이라면
배고픈 북한동포들에게
달걀을 나눠 주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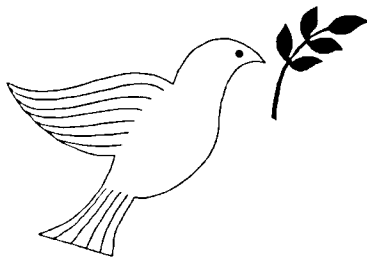
내가 제비라면
홍부에게 박씨 물어다 준 것처럼
북한동포들에게 통일의 씨앗
물어다 주겠네



내가 새라면

내가 한 마리 새가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겠네

그래서 통일의 문을
환짝 열겠네



축제

상동고 2 진효순

아사달로 가자, 아사달로 가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언어들처럼
만만년 역사를 거슬러 거슬러 가면은
뒤늦게 웃어주는 햇살 맞으며
축복의 그날은 오리라

축제를 열어
빛바랜 옛 추억들은
동해 끝자락에 내던지고
백두산 천지에서, 백록담에서
어리얼싸 손을 잡고
덩실응실 온 몸을 흔들어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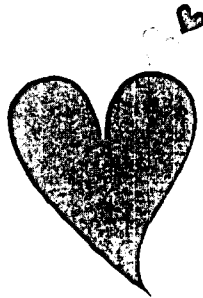
한 땅 위에 가로질린
철조망을 엮어서
머리에 꽃 단장을 하고는
그곳의 호랑이야 사슴들아
나와 함께 춤이라도 추지 않으련



축배

그 열기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 몸은 타 녹아도 좋으리

축복의 그날
반만년의 기쁨을 머금을
대 축제를 열게
가자
가자
아사달로 가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언어들처럼





통일의 바람

인제 상남초 5 권상훈

나라는 작지만
생각이 큰 우리나라

아픈 과거 있었지만
역사 깊은 우리나라

남과 북이 서로 도와
통일이 되는 그날

넓어진 땅 만큼
생각도 넓어지고

아팠던 과거만큼
밝은 미래를 맞을텐데

남과 북이 서로 도와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는 일류국가
우리는 세계최강



물

원덕중 3 광미선

또욱 푹 떨어지길
수천 수만 번
물방울은
웅장한 동굴을 만들었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물은
갈라졌다가도
다시 제 길을 찾아가며
결국엔 다시 한 곳에서 만난다.

될 듯 말 듯
그래도
언제나 한 마음으로
통일의 문을 두드리다보면
언젠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린다.

하나의 방울로 시작된
역사, 언어 그리고 민족
비록 지금은 갈라졌지만,



물

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도 통일로써 다시 만날 것이다.





금강산

춘천고 3 한봉욱

- 금강산 내린 물,
북한강의 강줄기는 금강산 댐으로 막혀 있었다.-

1.
북한강을 거슬러
금강산 위에 올랐다.
높디 푸른 비로봉을 화폭에 담고
구름을 타고
한스런 반세기 역사를 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대지.
적막의 강변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았다.
때를 지어 황야 속으로
불쌍한 영혼들
대지를 표류하며
제 육신으로 기념하듯
핏빛 발자국 남겼다.

붉은 강줄기 다다르는
멍든 하늘

얼룩진 금수강산에
아낙네들 타는 목마름으로
공무도하가를 불렀다.
흑발머리에 서리 내려도
적녀들의 눈물
마를 날 없었다.

2.


자랑스런 대지의 옛주인
영명한 고구려의 정신
눈부신 신라의 이야기가
바람으로 들려왔고
금수강산 대지를 울리던
경쾌한 말 발굽소리와 함성소리
우렁찬 호랑이 포효소리
메아리로 돌아왔다.

금강산을 떠나 북한강을 건너며
나는 기록보다 더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다.



절묘한 봉우리에 둘러싸여
하늘을 향해 솟은 금강산에
고이 잠드신 선열들의
만세소리 살아 있었다.
하나된 우리 국토가 지닌
위엄한 자태 용맹한 기상
한없이 뽐내고 있었다.

금강산의 품모를 담은 북한강이여
다가올 그날,
막힌 물줄기 뚫어
이 대지를
미래의 영광으로
빛나는 물로 흘러라.
한 많은 원부(怨婦)의
메마른 가슴 적셔주는
비단결 물로 흘러라.



● 충청북도

- 통일의 그 날 / 217
- 하나되는 마음으로 / 219
- 강 / 221
- 실바람에 실은 희망 / 223
-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 225
- 조각난 어둠 / 228
- 천지에서서 / 230
- 나의 반쪽 / 232
- 포기없는 기다림 / 235

통일의 그 날

백운초 6 이선주

북한의 하늘이 울었습니다.
남한의 땅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만나고 싶었다고

북한의 딸이 울었습니다.
남한의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만나고 싶었다고

이제는
동해 바다의 물고기 떼처럼
푸른 하늘 훨훨 나는 새들처럼
남과 북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을 가로막는



통일의 그 날

칠조망도 없애고
반세기동안
기다림에 지친
한과 분노도
없애려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상처를 훤히 주고
서로를 보듬으며

다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려 합니다.

통일의 그 날이
오려합니다.

하나되는 마음으로

진천여중 2 최혜정

닿을 듯 멀어지는
칠채너머로
그리움은 봄날처럼
아픈거리고
기억 속 작은 파편
끄집어내네.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곳이더라.

넘지 못할 장벽이
주검처럼 다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한숨으로
노래 부른다.

풀 숲 넘나드는 나비무리
너 반가우나
내 어머니 구슬피
혹여 눈물 마를
그 날 오려나.



하나되는 마음으로

한라를 오르날고
백두를 내리날며
어머니 고향하늘 그리어낸다.
뺨저린 아픔이
뜨거운 핏줄로 용솨음 치누나.

아. 하나되리라.
흘린 눈물만큼 기쁨있으리.
어머니의 눈물 먹고
행복의 싹 자라나네.

봄날 지나
우거진 여름 향하듯
반세기 기다려온
통일빛장 풀어보리라.

슬픈 내 어머니.
원망 섞인 한숨대신
아리랑 쓰리랑
기쁨주리라.



최우수상

강

총주교 3 장진수

맑은 강 오랫동안
한줄기로 흘러내려,
잠시 줄기 갈렸던들
그 강 어찌 둘 되던가.

바위 돌아 밀동 돌아
이리저리 굽이친들
갈라져도 하나되니
그 강 어찌 둘 되던가.

활활 타는 저 불길을
맑은 물로 꺼뜨리니
불이 앞을 막다 던들
그 강이 어찌 둘 되던가.

어둔 밤이 흘러 돌아
한 치 앞도 못 본 던들
하나되어 극복하니
그 강 어찌 둘 되던가.



하나된 줄기임을
하늘이 열린 이래
박달나무 줄기 앞에

그 뜻의 정해짐이
산줄기 끊어지고
바다가 매워진들
변할 줄이 있던가.

이아 하나된 강이여.





실바람에 실은 희망

단양초 6 김은숙

여린 풀꽃 같은 실바람.
실바람에 희망을 실어
따박 따박 경의선 따라
통일 담아 북으로 전하는 마음.

한 줄기 햇빛에 몸을 실어
힘들고 힘들지만
한들한들 산 들녘 따라
통일 담아 북으로 전하는 마음.

희망을 쌓아가고
쌓고 또 쌓으면
마음속에 쌓인 벽
하나 둘 무너뜨리고
체온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

희망을 가져!
창밖엔 통일이 있어!
약하고 여린 실바람에
믿음과 사랑의 희망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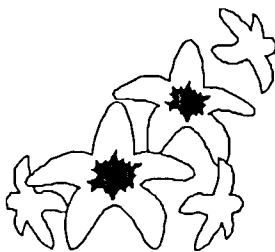


실바람에 실은 희망

북쪽 친구들에게 속삭여주겠니?

나무에 앉아
통일된 조국을 그려보고
풀잎에 안겨
우리가 펼칠 새 나라를 꿈꾸자.

깊은 동족의 마음
평화통일을 위한
실바람에 깊이 실어
서로의 비밀스런 그 바람
평화와 통일을 나누자.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은여중 3 김효진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 데.

어머는
봄이 되면
온 산하 가득히
진달래꽃으로 피어나
그 몸애 가득한 바람 소리를
알려주고 싶었다.

여름 매미소리
온 마을애 넘치던,
개울가애는 까만 아이들로 넘쳤고
햇살보다 고운 그 미소애는
바람 소리가 났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잎 사이,
미래를 그리는 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도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아침.
아침을 알리는 칫담의
붉은 벼슬 위에도
바람 소리는 있었다.

어미의
바람 소리는
나를 돌로 만들어 버린다.

아니.
나 자신이
그 어미처럼
바람 소리를 내려고 한다.

철없이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죄스러워서,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안아주지 못한 것이 바보 같아서
차라리 나를 돌로 만들려고 한다.

북녘 땅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리려는 어미의 바람 소리를
차라리 돌이 되고 싶은 내가
저 강물로 저 산맥으로 전하려 한다.

우리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미래를
후손에게 주어야만 한다고
통일이 꼭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바람 소리를 통해 말하려 한다.

아직도
바람 소리는 들리는 데.



조각난 어둠

충북예고 1 권지혜

반 백년 전 한반도의 하늘에
핏빛 향이 피어올랐다.

호숫가에 머뭇거리던 안개처럼
한반도는 핏내낀 연기만이 자욱했다.
어둠뿐이다.
조각난 어둠뿐이다.
너무도 짙은 어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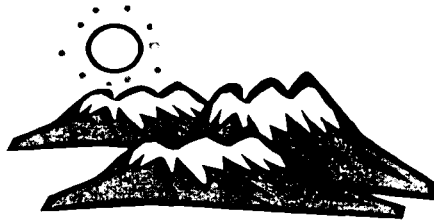
핏빛 향내에 질식해
어둠에 짓눌려
한반도는 매일 울어야 했다.

어둠은 진혼곡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 첫 닭은 해를 친다.
날개 짓을 한다.
목청을 돋운다.



조각난 어둠

이제 새벽이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에
어둠은 쫓겨가고 있다.



천지에서

덕성초교 6 최환희

2002 가을
연변으로
시 낭송 공연가서
처음 본 백두산 천지

통일되어
우리 북녘에서
보았으면 좋았을 터

허리잘린
우리조국
가슴아픈 현실이기에
중국에서
보아야 했던 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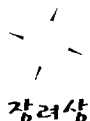
감동
환희
아픔
설움

내 마음 교차하면서
두 뺨에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
금새 발 밑이 축축하다

평화의 비둘기
날아와 준다면
내 소원 가득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리

통일
통일이라고





나의 반쪽

단성중 3 김선아

두 날개 화려하게
펼터이며
북녘 땅을 보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 휴전선에
고이 묻어둔 채
오래된 나의 반쪽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받쳐주는 기둥,
너는 나를 보호하는 지붕.

내가 가끔 흔들릴 때
너는 나를
꼬옥
잡아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



너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끊을 수 없는
기나긴 핏줄로 이어져있습니다.

항상 떠오르는 태양은
매일 볼 수는 있어도
난 그대들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희망의 빛을 맞으며
사랑의 빛을 나누며….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꽃들보다도 소중한
민족의 꽃.



백합보다 순결하고
목숨보다 끈질긴,
우리들만의 눈물어린
아름다운 꽃이

찬란하게 꽃 봉우리를
맺고 있다.



포기 없는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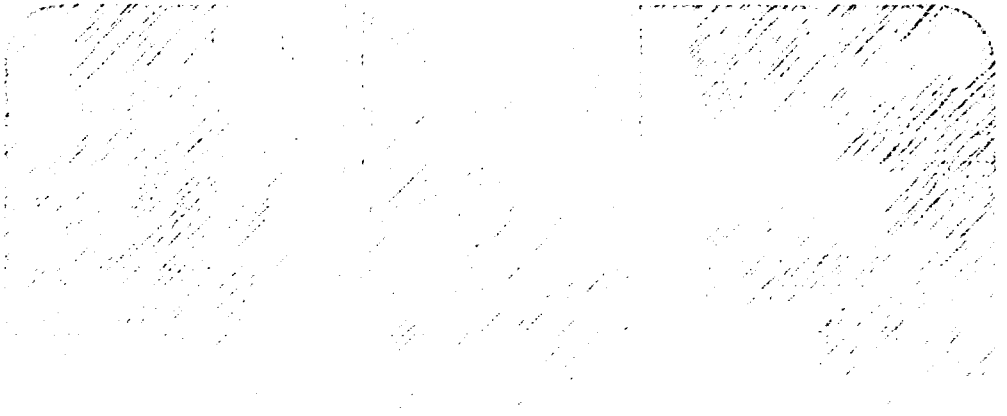
충북고 3 김민혁

가슴속 파고든 철책을 안고
가슴 더 깊은 속엔 시퍼런 멍을 간직한 채
많은 이들의 가슴엔 녹슨 철책이 따갑다.

참 많은 이들이 통한의 울음 울고
참 많은 이들이 울분을 터뜨렸다.
참 많은 이들이 그리움과 아픔을 안고
아몰지 않는 상처로 지금도 눈물 흘린다.

하나이지만 하나일 수 없는 아픔으로
온 국토엔 오늘도 눈물과 한숨 쌓여간다.

그러나 포기 없는 기다림이다.
조각난 거울처럼 나뉘어진 이 국토
신성한 한민족 우리 하나의 몸이
다시금 진정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가슴속 상처 서로의 위로로 아몰어 가고
서로의 아픔 뜨겁게 보듬는 그 날을...



● 충청남도

- 통일이 되면 / 239
- 통일의 기도 / 241
- 봄 밤 / 243
- 통일바라기 / 245
- 통일 / 247
- 하나가 될 때까지 / 249
- 올려라, 통일 곧든벨 / 251
- 통일 / 253
- 판문점에서 본 시계 /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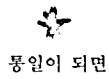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목면초 6 오정목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가고 싶어요
저 남쪽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 북쪽
백두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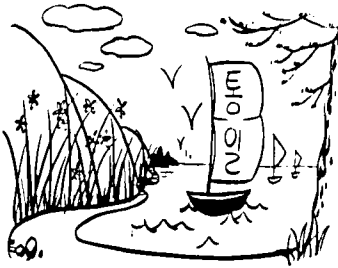
말씨는 달라도
얼굴이 닮은
친구들과 함께
정겹게 어깨동무하고
흘러내리는 땀방울
닦아주며
백두산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압록강가에 가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이야기 속에 나온
그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 위에
종이배 한 척 띄워놓고
금강까지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주고 싶어요.





통일의 기도

천안 두정중 1 권별샘

강화로 신나는 여행을 떠났어요.
만나면 손잡고 깔깔 호호 즐거운
내 핏줄 내 사촌 유리언니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에선 멀고도 멀어
세 시간은 달려야 겨우 도착하는 곳,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우리 땅이에요.

강화에 가면 북산에 올라요.
눈부신 신록과 아름다운 들판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북한이에요.

한 핏줄 한 거레 북녘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싶은 마음 하늘만큼 간절한데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할아버지 계실 북녘 땅 흠 내음이 너무나 그리워요.



통일의 기도

신문과 뉴스에서
북한으로 가는 식량 지원 차도 보았는데
북녘 땅 스피커에서는 북한 땅이 살기 좋다
대남 방송이 한창이고

고개 숙인 언니와 나의 눈 앞
녹슨 철조망이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보지만

기도 올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날,
언니와 두 손 모아 통일을 염원하며





봄 밤

예산여고 3 홍지은

봄 밤
두둥실 공이 솟아오른다.

향로봉 능선으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붉은 공이 솟아오른다.

춤사위는
반 백년 분단의 어둠을 사르고

봄을
어찌지 못해 터지는 들꽃 소리 가득한데

통일의 난장은
아직 잔설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시커멓게 무너져 내린
이산의 가슴앓이에 그리하지 못한다.



봄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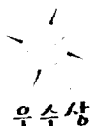
분단의 저편에 자리하는
그 유원의 아픈 기억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겨레의 열속에 도도히 흐르는
통일의 염원을 이제 어찌하지 못한다.

이 밤
봄꽃 터지는 소리는
분단의 세월 속으로 상봉의 꿈 사르고 있다.





통일 바라기

당진초 6 박수연

파아란 하늘에
둥그런 햇님을
바라보며

가슴속
간절한 소망 바라는
해바라기

그 소망은
휴진선 너머
북녘에 있는 동생을
한번만이라도
보는 것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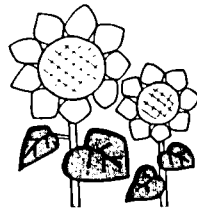
하루하루 언제나
햇님만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다가
모습까지 비슷해진 꽃

통일 바라기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끝없는 희망을
가진 꽃

우리도 모두
통일 바라기가 되어

희색 담을 혈은
통일 독일처럼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을
걸어내고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

연동중 3 성영아

마른 피가 딱지치고
한이 섞여버린
휴전선의 모습은
눈물도 매말라 흐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다.
한 심장으로 사랑을 노래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초췌해 질 줄은
누구도 몰랐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모한 일이던가
눈빛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은 어기는 일이었나.

압록강 대동강 사이로
뒤엉킨 쓰린 아픔이 흐른다.
그 아픔과 한이 흐르는 순간이면
휴전선의 딸없는 하소연을 씻겨주겠지.



통일

눈물 방울 모여서 천지를
이루는 순간이면
솟구쳐 오른 백두산까지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그렇게 눈물겨운 통일은 오겠지.





하나가 될 때까지

홍성고 1 안순규

태극기의 휘날림과
피의 역사가 채 끝나기 전
한반도에는
검은 줄 하나가 그어졌다.

꽃들이 찬란했던 곳은
대국의 힘에 짓밟혀 총소리로 변하고
자유의 선물 보따리 열기도 전에
우린 총부리를 겨눠야 했다.

두 동강난 허리를 부여잡고
한반도는 통곡했고
이념의 차이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 후, 한반도는 항상 기운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달력이 수없이 뜯기고
이제 한반도의 가슴엔
하나됨의 요구가 샘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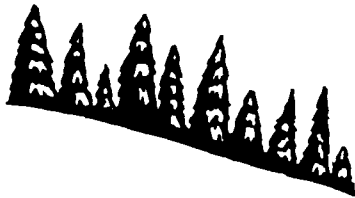


하나가 될 때까지

하얀 우유 빛 같은 마음 속에도
불굴의 대나무 정신에도
봄기운이 하나됨으로 싹이 튼다.

이제,
목 놓아 외치리라.
하나가 될 때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의 염원을 외치리라.
하나가 될 때까지.



올려라, 통일 골든벨

대치초 4 정다운

우리 고장의
국립 공원이 어디인가요?
계룡산요
라고 외치는
산 박사 재익이

우리 고장을
지나는 철도는 어디지요?
장항선요
라고 답하는
길 박사 다은이

최근 남북한을
이으려고 하는 철도는 무엇인가요?
경의선요
라고 발표하는
통일 박사 나

우리 반의
가장 신나는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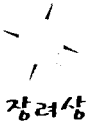
울러라, 통일 골든벨

울러라, 골든벨을 할 때
6월 주제는
울러라, 통일 골든벨

북한의 이모저모를
공부하는 나에게
통일 박사 덕분에
통일이 빨리 오겠네
하시느 우리 선생님

난 골든벨 울러
좋아라 하고
남북한은 하나되어
통일 노래 부르네





통일

홍성여중 1 장빛나

슬픈 편지 한 통이
저 북쪽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취 거부하시겠습니까?

주소 없이 오는 편지
다시 되돌려 보내시렵니까?

안타까운 사연
지금 허공을 떠돌 텐데.

우표도 없이 보낸 편지
집배원 아저씨는
오늘도 통일의 날만을 기다립니다.



판문점에서 본 시계

천안정보고 2 이해선

스무 살 시절까지의 고향을 품고
50년간 지내던 타향에서
눈을 감으신 할머니.

꽃가마 타고
먼저 고향에 가 계실 할머니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까 하고
49제때 가족들과 함께 간
판문점에서 우연히 본 시계

만남의 기쁨은 초침이
이별의 슬픔은 분침이
이제는 멈춰질
아니, 멈추어야만 할 너.

지금이라도 시간이 멈추어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길.

● 경상북도

- 고무줄 놀이 / 257
- 그 날은 오리라 / 259
- 우리는 가족 / 261
- 하늘아 / 263
- 그랬으면 좋겠네 / 265
- 무궁화 / 267
- 통일이 되면 / 269
- 만남 / 272
- 기다림의 끝에 서있을 그대는 / 275



최우수상

고무줄 놀이

외룡초 5 권민희

고무줄 놀이를 해요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마음대로 넘는 것처럼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갔으면 좋겠어요

고무줄이 휴전선이었다면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어
북한에 놀러 갈거예요

하늘의 구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남과 북이 마음대로
오갔으면 좋겠어요

휴전선이 없었더라면
비행기, 배, 기차 타고
북한에 소풍도 가고
여행했을거예요



하늘과 바다 땅에
아주 긴 선이 그어져 있대요
이름은 휴전선

휴전선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기고
50년 동안 둘로 나뉘어져
살았대요

하루 빨리
이제 우리가
하늘, 바다, 땅에
그어진 휴전선
휴전선을 이산가족의 눈물로
씻겨 버려요

휴전선이 없어진다면
남과 북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될 거예요

그 날은 오리라

우산중 2 최하나

그 날은 오리라
어두운 빛이 환하게 빛나는 날엔
우리겨레 한민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그 날은 오리라
작은 새싹들이 큰 기둥이 될 땐
나의 핏줄 한가쪽을
부둥켜안고

그 날은 오리라
거센 파도가 잔잔해질 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뛰어오리라

그 날은 오리라
이 나라를 더욱 빛내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한다면
그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



그 날은 오리라

착하고 밝은 웃음 간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하얀 백합처럼
깨끗한 나라를 만들면
통일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오직 한민족이란 말이 남는다

이제 남은 일은
이름을 떨치고 빛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가족

울진고 2 이정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위에 서서
같은 꿈을 꾸는 우리들입니다.

서로 미워해본 적도
싸워본 적도
그리고 그리워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함께 느끼고 생각하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서
다정스레 눈 마주쳐본 적 없어서
서로를 부정하고 무시해 버렸던 우리들입니다.

귀를 막는다고
애달고 안타까운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까.
눈을 가린다고
같은 땅, 같은 하늘을 그리워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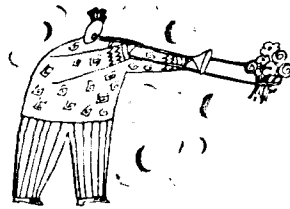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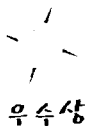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

할머니의 눈물을 볼 수 없었을까.
항상 열려있던 귀와 눈을 막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와 눈을 열고
서로의 아픈 상처를 감싸안으며
같은 꿈을 이루어 나갈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싸울 수 있는
사랑이 있기에 미워할 수 있는
잠시 헤어져 있더라도 그리워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늘아

울진 남부초 5 김형민

하늘아 하늘아
나를 비로 만들어 줘.

북녘 땅위에
촉촉한 비 내려
농사짓게 할 테니.

하늘아 하늘아
나를 꽃씨로 만들어 줘.

철조망 넘어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꽃피워
웃음 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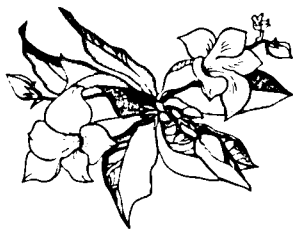
하늘아 하늘아
나를 새로 만들어 줘.

남쪽 친구들의 마음 담은
예쁜 편지 한 통
입에 물고 전해줄 테니.



하늘아 하늘아
나를 가위로 만들어 줘.

저기 멀리 보이는
휴전선 철조망
모두 잘라버릴 테니.





그랬으면 좋겠네

고령중 1 윤준현

남녘 땅에 살고있는
우리가 실어보내는
쌀과 의약품이
힐벗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햇볕이 되었으면 좋겠네

서로서로 힘을 모아
실어보내는 작은 징성들이
배고픔에 지쳐있는
북녘 땅 가족들의 가슴에
따뜻한 이불이 되었으면 좋겠네

두 손 모아 보내는
우리들의 기도가
오랜 가난에 떨고있는
동포들의 차가운 눈물을
따뜻이 녹여주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서로 등 돌린 채
살아온 50년
두꺼운 분단의 벽을
눈 녹듯이 녹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강물처럼 껴안았으면 좋겠네

오랫동안 우리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이 땅의 겨울은 멀리 떠나가고
삼천리 금수강산
새봄처럼 환짝 피었으면 좋겠네

휘날리는 태극기의 웃음소리
세계에 우뚝
솟았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무궁화

경북외고 2 김은실

평양 시내 한 가운데 교차로에 서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너의 얼굴을 보면서
마냥 즐거워하리

나는 그저 평양 시내를 두리번.
이곳에 서있기 위해
무궁화가 피고 지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보았다네

내일은 남한강으로 가보리
소양강 댐에서 그간 못했던 말을
몇 시간이고 나누세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줄기
자네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
하얀 비둘기 때만
몇 번을 하늘로 날려보내야만 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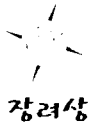
나는 그저
또다시 소리없이 피어있는



무궁화

하얀 무궁화와
나의 아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장려상

통일이 되면

영양 중앙초 6 김정우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먼저 할거니?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정상에서
“통-일-” 소리지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강가에서
“통-일-” 소리지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낙랑, 고구려, 고려시대……생각하며
유물 유적 살펴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함흥, 평양 냉면 시원하게 먹고
무더운 여름더위 날려보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곳곳에서
북한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많이 사귄 북한 친구들에게
하회마을, 63빌딩 구경시켜줄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남한노래, 북한노래 섞어 부르며
북한 친구들과 신나게 춤출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내 친구, 북한 친구 한데 어울려
멋진 축구경기 해 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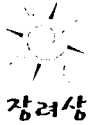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남한 공부, 북한 공부 서로 배우며
하루 종일 토론을 해 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남한 놀이, 북한 놀이 서로 가르쳐
시간을 잊고 놀아볼 거야.

정우야! 남북통일 되면은
무얼 할거니?
해볼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만남

청통중 2 박수지

바람이 되고 싶다.
물결치는 바다가 되어
고향 하늘을 목놓아 부르고 싶다.

아무리 외치봐도 메아리뿐
가슴 저 편이
슬픈 박동 소리는
점점 더 살아 뿜다.
저 산만 넘으면
저 강만 건너면
그리운 이들이여!

발버둥쳐 보지만
잡힐 듯 잡힐 듯
멀어지는 안개 속
아쉬운 마음은
멍든 가슴 울리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우리 땅
가슴이 쿵광거리고
설레이는 마음

시원한 바람 따라
출렁이는 파도 따라
고향소식 전하면
물길치는 은빛 바다가
어깨동무한 푸른 산이
나를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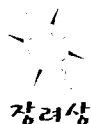
성큼 다가선 푸른 하늘
환한 미소 머금고 달려와
활짝 열린 가슴으로
반갑게 맞이하면
그 길 따라
종종 걸음 쳐
달려가리라



만남

이제
바람이 되지 않아도
물결치는 바다가 되지 않아도
나의 발로 걸어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 날을
나는 기다리리라.





장려상

기다림의 끝에 서있을 그대는

경주여고 2 김정음

겨레의 뼈 시린 추위 끝에
태어난 그대,
피로 얼룩진 나의 옷과 몸은
그대의 땀줄에 엉키어
자지러진다.

그대의 울음소리가
총성에 파묻히고
그대의 배냇저고리가
피난민들의 거친 발걸음에
짓밟히던 찰나.

그대는
고귀한 사냥감이 되어
싸늘한 철조망을 향하여
끝없이 달음박질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길로
'나 돌아온다'
말도 없이



기다림의 끝에 서있을 그대는

영영 떠나버린 그대

그리움이 원망으로 찾아들어
지내 온 50년

까만 밤하늘 텅 빈 그곳
그대의 빈자리 옆에
나 홀로 다소곳이 앉아
흐린 추억 속에서
애타게 그대를 불러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타 들어버린 원망의 잿더미

그대가 떠난 아픔도
하늘 높이 피어오른
구름에 띄워 날려 보내리.

50년 전의 오늘
그대 날 떠나갔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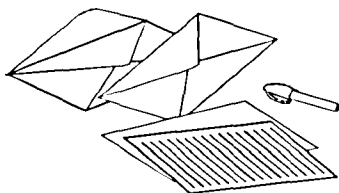



기다림의 끝에 서있을 그대는

갑작스레, 그리고 태연히
그대여 다시 내 옆자리로 돌아오오.

코끝을 달콤히 적시던 배냇냄새가
장성한 청년의 피끓는 청춘으로
중후한 연배의 굳은 주름살로
화(化)하던 나날들.

그대 내게로 돌아와
고스란히 펼쳐
마음 속 사무친 사연들을
하나하나 접어 날리세.





● 경상남도

- 그리운 고향 / 281
- 고향 / 283
- 고향가는 작은 새를 보내며 / 285
- 고향 길 버스 / 286
-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 / 288
- 나의 고향 / 290
- 잃어버린 우리 고향 / 292
- 고향 / 294
- 고향-남과 북 / 296

그리운 고향

안남초 6 김지영

벽장 속 먼지에
검게 그을린 지도 한 장.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조심스레 펼친 한반도엔
고통과 아픔으로 물든
붉은 선 하나 그어 있었지.

그 붉은 선 따라
몰래 옮겨간 내 손가락.

그 손가락 밑
살짝 고개 내민 그리운 고향은
분단의 아픔도 잊은 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네.

그 웃음 속에 꼭 잠겨
한참을 바라본
마음 속 내 고향……



그리운 고향

비록 한 번의 발걸음조차
내딛을 순 없어도

수많은 팔 뻗어,
구수한 흙내음 퍼뜨려
나를 반기는 고향 냄새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저러와
그 때의 슬픔을 떠올린다.



고향

창원 반림중 3 구자진

계절이 머물다 간
밭자국만 남은 곳
낡고 야트막한 담장너머
밭둑 길을 내다보았다.

산 그림자 길게 드리우던
밭고랑 가운데 동그란이 앉아서
흙 가꾸던 손길 거두며 일어서서
애꿎은 허수아비 몸통에
머리수건 툭툭치며 먼지 털어 내곤
산 그늘 거두며 바쁘게 오시는 분

부족한 내가 늘 대견하고
바람 한 줄기에 날려 갈 새라
억센 손길 늦추지 않는 그 분

수수밭의 수숫대처럼
키만 훌쩍 자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노쇠한 몸엔 변함없는 믿음과



눈길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햇살 같고 시원한 바람같이
울컥 가슴치며 뜨겁게
나를 자라게 하는 할머니
정겹고 따스한 마음의 고향인 분

화창한 유월
마른 화분에 한 줄기
물이라도 뿌리면
물씬 풍겨오는 흙내음에 생각나는
그리운 고향…… 보고프다.

어느새 나는
계절이 머물다 간
발자국만 남은 곳
낯고 야트막한 담장으로 달려간다

고향가는 작은 새를 보내며

창원 문성고 1 이상은

네 주위를 둘러싼 야속한 철창 속에 갇힌 지금은
 기지개도 크게 한 번 못하지만
 잠시후면 태양 가까이 오르게 될 거야
 철창 밖 풍경을 양 날개로 저울질하면서
 내가 살던 그 곳, 북녘을 향해 날아오르겠지
 그간 겪은 어둠과 상처를 말끔히 떨궈내고는
 고향의 가슴 뭉툰 품속에 안길 준비를 하는거야
 하늘을 찌를 듯한 철조망 앞에서
 총을 메고 대치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겠지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
 그들도 가슴 한구석엔 고향이라는 작은 씨앗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잠시 곁에 앉아 너의 이야기길 들려줘
 너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연두 빛 싹을 틔우게 할지도 몰라
 고향이란 씨앗은 뾰족한 철조망 보단 하얀색 울타리를 더 좋아하거든
 과거의 무관심과 적개심에서 벗어나
 그들이 무겁고 낡은 총을 벗고 허리를 굽혀 꽃씨 한 줌을 땅에 심는 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 씨앗들이 흙 속의 어둠을 뺏아내어 몸을 일으키기를 기다리는 거야
 자, 이제 너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
 안녕



고향 길 버스

창년초 6 윤이나

드르릉 드르릉
해님도 눈뜨며
일어나는 새 아침입니다.

재잘재잘 까치 식구들도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 모시고
개구리 소리 들리는
할아버지 고향으로
부웅부웅 버스 타고 갑니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느릿느릿 버스타고 언제쯤 갈까?'
스르르 눈꺼풀을 내립니다.

고개 너머 산 너머
저 도라산이 보입니다.
어느새
할아버지 고향 마을.



나 잠든 사이
새 날이 왔습니다.

쿵닥쿵닥 나의 마음
자꾸만 두드립니다.

덜커덩 덜커덩
돌아오는 길,

자꾸만 자꾸만
뒤돌아 보는
할아버지의 고향 길입니다.

덜커덩 덜커덩,
느릿느릿,
멀고도 험한 고향 길이지만

어깨 걸고 등 두드리며
함께 가는
할아버지 고향 길입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

밀양 동명중 2 송아정

하나의 이 땅에
같은 고통을 지닌 그들
그리 멀지만은 않은 곳에
떨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처럼
들릴 듯 말 듯 하는 신음소리
고통을 토해내는 울먹임이
주파수를 맞춰가자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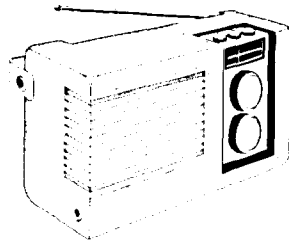
고통을 감추듯 푸른 하늘...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할아버지의 손길이 거칠어 간다
지지직거리며 다시 들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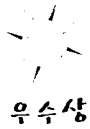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손길이 멈출 때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을 맞잡는
나라가 될 때,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

할아버지의 낡은 라디오는
추억이 되어 가슴 속 어딘가에
꽃 한 송이 심어지듯
남아 웃는다.





나의 고향

장유고 1 박영태

그대로 우리는 한 빛깔이고 싶었다.
동구 밖 해묵은 느티나무 서있는
그 마을에서 알알이 곱게 영그는
은빛 밝은 석류 알맹이고 싶었다.

통일전망대에서
휴전선 위로 안개 희미한
저 동네가
소리의침으로
옛 이웃이 달려나올 것 같은
몇 발자욱으로
그 집 앞을 성큼 들어 설 것 같은
평화로이 숲으로 쌓인 저 동네가
이산의 아픔을 갖고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향
북녘 땅이란 말인가?

지난해 명절날
쓴 소주 한잔으로

고향생각 애써 잊으려던
남쪽 사는 이산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힘껏 다물어진 표정에서
황해도 옛 고향 이름이
고통스럽게 흘러 나왔다.

대나무 꽃 서슬 푸른 밀동을
울면서 잘라내며
함께 땀 흘리던 형제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언덕에서
지는 해 어두움에
슬픔을 묻고 산다.

우리네 하얀 전설을
믿고 산다.



잃어버린 우리고향

진해 안청초 6 조주연

동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이
조물조물 찰흙되어,
TV속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1분만, 딱 1분만 하시다
끝끝내 비스에 오르신
TV속 아저씨 눈에선
또그르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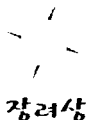
아프겠지요, 슬프겠지요.
눈이 퐁퐁 부어 오르도록
울어야겠지요.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야겠지요.

강물이 굽이 흘러 큰 바다 될 때까지
길 잃은 작은 새,
듬직한 아빠새 될 때까지
우리는 이토록 슬퍼야 하겠지요.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린
고향 때문에 통일을 노래부릅니다.

이젠 너무나도
멀어져버린 그 곳을 향하여
노래부릅니다.



고향

창원 대신중 3 유미진

비 개인 투명한 날이면
낮은 개나리울타리 너머로
둘이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없이 걸었던 이 길
네가 조심스레 내밀었던
보송보송한 강아지풀 하나

너와 내가 꿈에서 만난 날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천둥소리와
역수같이 퍼붓던 빗줄기
타버린 너의 잿빛 심장과
피로 새빨강게 물든 나의 손
식은땀과 눈물로 옷까지 젖은 악몽
깨어보니 남은 건 어둠 속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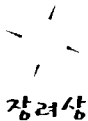
비가 그치지 않은 걸까
네 가냘픈 그림자조차 희미하고
간간이 들릴 듯한 발자국 소리만
모든 반쪽이 잘려 무의미한 존재
그렇게 시계초침처럼 바보가 되버린 반세기



고향

이른 새벽 흐린 달은 차갑게 노려보고
창 너머로 보이는 따듯했던 그 곳엔
황토 빛 흙먼지만 시린 바람에 흩날린다
개나리꽃, 강아지풀 하나
돌아나지 못한 봄
피로 녹슨 가시넝쿨만
외로운 고향을 지킨다





고향-남과 북

창원 문성고 2 정소영

깊은 추억 속으로 내 몸이 잠깁니다...

고독한 내 삶으로부터의 안식이
한 걸음씩 멀어져갈수록
등뒤로부터의 따사로운
한아름씩 나를 몸서리치게 감싸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바다와
깊이를 헤룰 수 없던 하늘이
당신 계시던 그곳의 그림자로
나를 덮곤 했습니다.

이토록 서글퍼함은
또한 그리워함 인지요...

오래 전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한곳에서 짙을 띄워 꽃을 피웠던
우리는 둘이었습니다.

둘이지만 하나로 엮힌
우리는 서로의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보고파 목 메이는
그 곳에서 내 영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닿을 수 없어 더 아려오는
그 곳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은 추억 속에 잠긴 내 몸은
따사로움을 잃을까, 그림자가 떠날까
두 손을 허공 속에 허우적대었습니다.

그리움에 지쳐버린 새가
다시금 현실로 날아들 때,

울다 고개를 든 내 눈앞에는
당신도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고향-남과 북

슬픔이 무엇인가?
그리움은 언제까지인가…?

애절한 쓰라림을 수없이 되뇌면서도
나는 억지로 그림자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리라…, 흩어지리라….



● 전라북도

- 통일 나비 / 301
- 도라산 전망대 위에서 / 303
-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 304
- 통일의 바다 / 308
-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 310
- 그 날을 기다리며 / 312
- 통일로 가는 열차 / 315
- 어머니의 미소 / 317
- 무궁화가 시듭니다 / 319



통일 나비

전주 풍남초 4 서은영

나는야 가고 싶어.
50년 동안 굳게 닫힌 철조망 너머
통일 꽃밭으로

북녘에 핀 모란꽃
남녘의 무궁화
꽃가루 가득 문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날아가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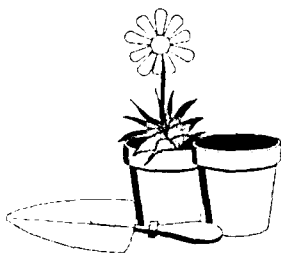
할머니의 깊은 한숨
날려보내고,
환한 미소
가져다주는
통일 나비 되고 싶어.

무서운 북한 핵
태평양 한가운데
묻어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나란히 찍은
사진 담아

온누리에
실어 나르는
통일 나비 되고 싶어.



도라산 전망대 위에서

부안 주산중 3 김효진

나, 이곳까지 왔다.
반으로 찢어진 국토의 한 자락
덩그러니 남겨진 역사의 상처가 있는 곳

500원 동전 하나로
저 멀리 우리 땅, 우리 민족이 보이는데
수천 수만의 마음으로는 부족하기만 하다.

땅따먹기 놀이를 하듯
저긴 네 땅, 여긴 내 땅 금 그어놓고
우리 땅은 갈라져 찾아볼 수 없다.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갈기갈기 찢어져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아무는 날
저 산너머 해님을 가린 구름이 걷히고
광명의 햇살 받아 온 세상이 밝아지는 날

그 날이 되면
모두 나아가 손을 잡고 노래부르겠지.
저기 있는 칠조망 맨손으로 뜯어내겠지.



최우수상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전주 슬내교 1 안이슬

싱클레어, 너는
저 철조망 이북 하늘에
푸른 꿈을 그리며
살고 있겠지.

자유와 민주로 채색된
이 남녘 하늘은
오늘도 전해지지 않는
나의 메아리만 울린다.

너의 이름 세 글자조차
알 수 없지만
꿈꾸는 나의 친구,
싱클레어.

같은 별을 바라보며
한 조국의 하늘아래
꿈꾸는
우리에게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서로가 닿지 못하는
너와 나의
차가운 현실은
가혹하다.

싱클레어, 남녘의 이들은
너의 작은 몸짓을
날개 꺾인 어린 새처럼
여기지만

나의 친구여,
자유로운 남녘 어린 새도
이미 너의 꺾인 날개와 함께
힘없이 파닥이고 있다.

너의 꺾인 날개엔
나의 소망이 담기고,
나의 빛 바랜 하늘엔
너의 순수가 어린다.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자유롭고 푸른 꿈은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매마른 정책과
사상에 밀려

순수한 마음을
메아리 울려
너의 그 맑은 눈동자와
마주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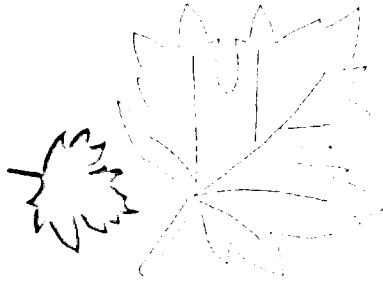
싱클레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파도에 밀려
너와의 꿈과 우정은
멀어졌지만

파아란 빛 어두운
새벽 하늘을 향해
언젠가 만날
그 날을 그려본다.



북녘의 싱클레어에게

2003, 데미안과 싱클레어.
남북의 하늘 아래
알을 깨고 나온 우리는
서로에게 날개를 편다.





통일의 바다

정음 수성초 6 윤소미

말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립니다.

가끔 거센 파도를 만나도
서로 몸과 마음을 합하여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립니다.

서로 협동하여 노를 저어가며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닥쳐도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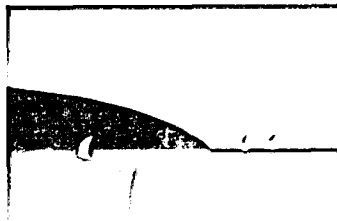
누가 우리에게 눈물을 주었나요
우리가 서로 닦으며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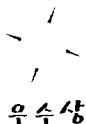
누가 우리에게 총부리를 마주하라 하였나요
서로가 사랑으로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립니다.

통일의 바다

어느 누가 가로막으리오
우리가 협동하여
우리는 같은 바다를 건너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일의 바다를 건너드립니다.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고창 영선중 3 김미지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무궁화 꽃나무 한 그루를 선사하리다.
이젠 의좋은 형제처럼
나란히 놓여질 무궁화를 선사하리다.
그 꽃들이 모여 만발할 때쯤,
우리도 백색단심 무궁화처럼
일편단심 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겠지….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하이얀 비둘기 한 마리를 선사하리다.
철조망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날 수 있는 비둘기를 선사하리다.
내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 새가 철조망 너머로 사라질 때쯤,
평화를 꿈꾸는 하이얀 비둘기처럼
우리도 마음껏 님과 노닐 수 있겠지….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두 손 마주잡고 기도하는 내 모습 보여드리오리다.
지난날의 고통을 이젠 추억으로 떠올리길 바라는
간절한 내 모습 보여드리오리다.
마음으로 그들과 한 민족임을 느낄 때쯤,
님 향한 이 마음, 모두 들으실 수 있겠지...

무궁화, 진달래 한테 어우러져
이젠 북한, 남한이 아닌 한반도로
칠조망이 아닌 희망의 나무들로
싹 틔어질 때쯤,
일편단심 님 향한 이 설움
하루 빨리 행복으로 매꾸어질 수 있겠지.

내 작은 외침,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젠 눈물 아닌 함박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

그 날을 기다리며

전주여고 2 심미선

가자,
아우에게 가자

눈물로 말라붙은 반 백년 기다림에
잡초마저 그리워라 가야할 산천

열 아홉 봉우리 백두야
숨 가쁘게 뛰고 또 뛰어
가슴 벅차도록 한라를 안으렵

품속에서 피어나는 눈물로
호남평야 철원평야 굽이쳐
압록에서 낙동까지 꿈틀거려
칠천만 동포의 응어리를 쓸어가라

한반도에 누워 있을
검은 그림자,
가슴 위에 얹혀있던
돌로 내려 짊어라



그 날을 기다리며

유월의 가지속에 굳게 닫혀진 문을
타오르는 염원을 모아 부수고
한 걸음씩 하나 되어 내딛어보자

빛나는 금수강산 부딪겨
하나 되는 날,
식은 핏줄에 불을 당겨
맥박이 뛰고 뛰면

조선 호랑이 등에 업혀
날아갈 듯 아우에게 갈 것이니

견우야, 직녀야
나는 이제 부럽지 않아라
오작교가 대수라드냐
목 놓아 부르던
형제를 만난단다

구멍 뚫린 철모 잊어도 좋다
내 함성으로 메워 주리니
고집스레 움켜진 녹슨 총자루를 버려라

그대 젊은 영혼의
고귀한 뜻 이루었으니
제 이름 부르며 가노라

신명나게 가보자
야윈 어깨라도 장구메고
잔칫날 위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자

내 뜨거운 피라도 뿌려
가마솥을 달구어라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필 날이 오노니

가자,
아우에게 어서 가자.

통일로 가는 열차

군산 나운초 5 양주희

뿌릉 뿌릉 뿌르릉
평양으로 가는 기차역입니다.
이렇게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사랑과 희망을 안고 달리는
통일 열차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그 열차를 탈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북한어린이를 만나봐야지.
부모님 손 꼭 붙잡고.

희망의 열차를 타고
힘차게 달릴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금강산도 볼 수 있을 텐데…….

멈춰버린 열차의 고장난 바퀴들을
하루빨리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통일로 가는 열차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닭고 조이고 기름칠한다면
새로운 꿈의 열차도 움직일 수 있겠지?

잘 들어 볼 꺼야.
멀리서 들려오는 기쁨의 노랫소리
우렁찬 바퀴들의 짹짹 행진소리.

울려라 울려라 기적의 소리야
달려라 달려라 희망찬 미래야
부푼 꿈을 안고 달리는 우리의 통일 열차야.



장려상

어머니의 미소

군산 산북중 3 박선영

처음 밟아보는 이 고실한 땅
굽은 붓끝자락 위
흐드러지게 무궁화 꽃 피어서야
내 어머니 머릿결 쓸어본다.

50년 목메어 울었던 가슴
살며시 움켜쥐고
술 한 모금 입에 담고
목놓아 외쳐 본다.

이제 식어서 튀지 않는
어머니의 심장소리
나 혼자 잊지 않으려
사진 속 모습 담아 본다.

그리워 했다고
보고싶어 했다고
내 고향 뒷 등산에
메아리로 돌아온다.



어머니의 미소

아직 잊혀지지 않은
전쟁의 아픔
통일이란 한 단어로
가슴속 깊이 묻고

이제 부끄럽지 않다고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한 민족, 한 핏줄, 한 겨레로
같이 갈 것이라고

내 어머니
푸르른 미소 위
황홀한 이 마음 전해드린다.



무궁화가 시듭니다.

산서고 2 최은주

무궁화가 시들고 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뿌리엔
늙은 노인네들의
힘없는 소망만
덜그럭거리며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무궁화가 시듭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원한 함성소리 기다리며
초록 잎사귀는
희망을 말아 쥔 채 타들어 갑니다.

무궁화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물줄기가
뿌리에 닿아
한반도 가운데 환히 꽃 피우기를...



● 전라남도

- 꿈꾸는 경의선 / 323
- 무궁화 꽃 길 / 325
- 우리나라 지도 / 327
- 너와 나 하나되는 날 / 329
- 풀꽃 / 331
- 앞집 할아버지 / 334
- 통일의 파도 / 336
- 반세기의 기다림 / 338
- 마음과 빗줄의 힘 / 341



최우승상

꿈꾸는 경의선

삼호서초 5 장선진

깊게 패인 상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길
곱게 핀 진달래마저

내 것 네 것 나누어버린
녹슨 철조망에
잘려진 철길

꽃피고 질 때마다
타는 가슴으로 그리던 고향
눈물로 불러보던 가족

백만 개의 지뢰로 막지 못할
오십 년 모진 세월
칠 천만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이어질 그 길

서울에서 장단을 지나
평양에서 신의주로
평양에서 신의주로



꿈꾸는 정의신

그리움 묻어나는
눈물 닿는 그 곳까지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 날,
처절하게 우리를 갈라놓던
날카로운 철조망 허물고
서로에게 달려갈
그 날을 그리며

무궁화 아름안고
태극기까지……

한민족 뜨거운 피 삼아
힘찬 기적 울리며 달리는 기차에
동일을 향한 나의 간절한 꿈
하얀 꿈을 실어본다.

무궁화 꽃 길

곡성여중 3 이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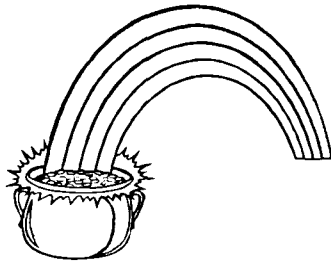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사악한 미소를 띠며 다가온
탐욕의 손길이 갈라놓은 나의 육체여

갈라진 내 몸
고통밖에 더는 남지 않았거늘
부둥켜안고 설 곳이 없구나.

나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원치 않았던 이 가시덤불
얼마나 할퀴었던지 상처뿐이구나
이 숨막히는 답답함을
어서 빨리 걷어다오.

아아, 내가 완쾌되는 그날이 오면
칠 천만 손에 손잡고 축가를 부를지니
오십 년 세월의 벽아
이제 그만 비켜 다오.
삼천리 화려강산 그리움에
눈물마저 메말랐구나.

언뜻 햇별이 드는가 했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캄캄하구나.
어서 날이 밝거든
무궁화 삼천리 꽃 길
활개치며 걸어보고 싶구나.





최우수상

우리나라 지도

광양 백운고 2 마지막인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자.
아이들의 그림엔
어느새 선이 하나 더 그어지고
빨강과 파랑이 얼룩진
부끄러운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보자.
할머니의 마음엔
어느새 선이 하나 허물어지고
너무도 당연한 우리 땅을 밟는다.
지도 위에선 못 갈 곳도 없지.

뒷에 걸린 호랑이는
피로 붉게 물들고
상처로 푸른 멍이 들었다.
마지막 남은 백두산 호랑이의
꺼져 가는 숨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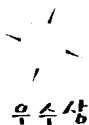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도에
하나의 색을 칠할 그 날까지



우리나라 지도

잃어버린 땅의 흙을 밟을 때까지
우리 내민 손 거두지 말고
화해의 악수를 하자.





너와 나 하나되는 날

순천 용당초 6 박진아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백두산의 하룻하룻
퍼져오는 꽃향기가
내 코 끝을 간질이네.

그 여릿한 꽃 잡으려고
손 뻗어도 꽃내음만이
나를 감싸주네.

친구야! 여릿한 꽃송이
우리의 화해, 소망, 사랑을
넣어 보자꾸나.

꽃송이 꽃내음이
온 세상에 퍼질 때
우리의 화해, 소망, 사랑도
같이 퍼지겠지?



너와 나 하나되는 날

아마도 그 뎨 고목나무들이
철조망을 대신하고 우리 마음도
대신할 것 같구나.

화해, 소망, 사랑이
퍼지는 날 우리도 함께
쌍동밤이 되어 백두산,
한라산에 새싹 심어주지꾸나

너와 나 하나되어 가는 날,
남·북도 하나되고
세상도 하나되어 가구나.

풀꽃

목포 정명여중 3 박희정

새벽 하늘을 깨우는 햇살만이
고요히 하루의 아침을 비껴갈 때
말없이 작은 풀꽃 어루만져 본다.

꺾어볼까 생각도 해보지만
살랑거리는 작은 바람앞새에도
뽀뽀이 흠어질 것만 같은
자그마한 어린 향내가
햇살 속에 가련하게 빛나는 것 같아서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다.

어지러이 뒹구는 시린 자갈들이
명들어 버린 풀꽃의 작은 잎새아래
고독의 씨앗과 무성한 잡초가 되어서
고요한 눈물 한 울음
울어내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풀꽃은
끝없이 어린 향내 온몸 가득히
뽀뽀어내고 있었다.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풀꽃은 그렇게
가녀린 몸을 뺏어서
그리운 이름들을 부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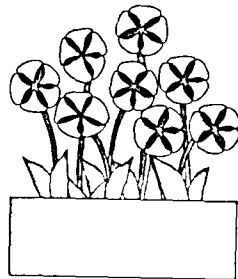
우리들 소원은
작은 풀꽃으로 피어
자갈밭과 잡초 속에서도
꽃대궁 의연한 한 송이 풀꽃 되어
지금은 연약한 그 뿌리 땅 속에 뺏어가리라

허리 잘린 국토의
분단의 고통스런 저 밑바닥으로
저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뿌리 뺏어 싹을 틔우리라.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린 향내 뺏어내리라.
한반도 하나되는 통일의 그날까지
나비와 벌들을 기다리면서…….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닌 것을
끝없는 우리네 일상의 꽃밭에서
자갈과 잡초처럼 무수히 널리어진
수많은 시련과 고독의 나날 속에서도

나비와 벌떼같은 그리움을 함께 나눌
그들과 맺어갈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여린 향내를
고이 뿔어낼 수 있었을 것을…….





앞 집 할아버지

금성고 2 김재훈

멀리 북쪽을 바라보시며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눈물을 머금은 새들이 울고
외로워 구슬픈 바람도 울던 밤
절실하던 그 눈망울과 고사리 손
잡지 못해서...

깨질 듯 푸른 종소리가 울고
절절하던 힘든 일로 거칠어진 손
잡지 못해서...

이렇게 평생 슬픈 새가 되어 울었노라고
이렇게 평생 아픈 새가 되어 울었노라고
잡지 못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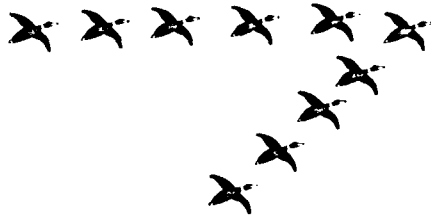
이젠 갈라진 길도 마음도 너무 멀어
보지 못할 수도...



앞 집 할아버지

하지만 남은 생 조금 짧더라도 조금 멀더라도
여기에서 젖은 구름 뒤로 지켜보겠노라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나를 슬프게 한 이야기





통일의 파도

목포 서부초 5 서수민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마음속에
파도가 친다.
가족을 만날 기쁨의 파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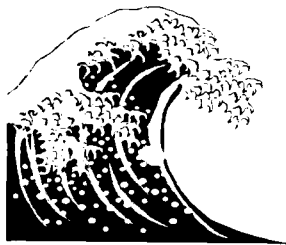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운동 선수들 마음속에
파도가 친다.
북한 선수들과 함께 뛰
희망의 파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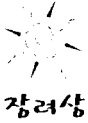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어린이들 마음속에
파도가 친다.
새 친구 사귄
반가움의 파도가...



통일의 파도

통일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파도가 친다.
사랑과 평화의 파도가...





반세기의 기다림

고금중 2 신금지

긴 여운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행여 입의 자취라도 선선하기 만한 봄바람이
전해주지 않을까 하며 한걸음에 몇 번씩 눈길을 돌렸지만,
입이 있는, 이복은 두터운 외투를 입어 그저 멀어 보일 뿐입니다.

긴 한을 품고 목놓아 부르던 외침도 이젠 목 쇠어버렸습니다.
잠시 먼발치에서 웃음도 웃기도 하였지만요,
못 갈 곳이 없어 보이던, 그 위풍당당한 기차도
이복을 향하던 우리의 꿈과 희망도
입이 있는, 머언 북에 닿지 못한 채 자고 나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날에 임이시여!
잘 계시는지요?
아직도, 하늘은 발을 담그면 얼어버릴 것만 같이 파랗습니다.
반세기, 내 피와 눈물이 섞인 세월.
오 년간의 따뜻한 햇살에 등을 덥히우고
행여, 내가 그리워, 그대 그리워,
한번이라도 산등성이에서 풍상을 거친 허리를 굽어
이 곳을 내려다 보셨는지요?



같은 곳만 응시하고 있는 내가 우습지는 않던지요?
바보처럼 칠조망을 붙잡고 서럽게 눈물을 훔치던 내가,
한심해 보이지는 않던지요?
혹시, 발에 족쇄라도 채워진 듯 한낱 같은 곳만 배회하던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던지요?
짝사랑의 연애편지만 보내는 것에
안타까와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운 임이시여!
난 아직도, 바보처럼 그리움에, 당신의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에 피를 나눈 한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눈 그날에
몸을 담그고 하였지만
대포의 연기도 가신지 오래고 칼은 녹슬어
이제 녹슨 대포와 그 무딘 칼을 녹여 새로운 남북 통일의 길을 여는
철마가 달리는 철도가 되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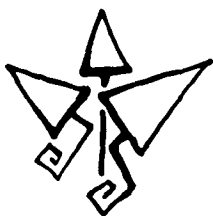
임이시여! 오늘따라 6월의 신록이 우리 굳센 땀내음으로
사무치도록 그리울 뿐입니다.
오늘에야 임의 이름은 북녘의 메아리로 내 가슴깊이 새겨집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을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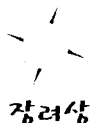


반세기의 기다림

하늘과 바다가 열리더니만
철마도 그 발길로 3000마력의 두 대의 힘찬 용트림으로 시작합니다.
뒹뒹뒹뒹 16차선의 그 길도 이제는 곧 열리려 합니다.

임이시여! 그러기에
기다리라면 기다리지요. 자신만만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날로 또 다른 반세기의 날을
전처럼의 날로 맞이하지는 않겠어요.
임이시여!
희망의 배개를 안고 뒹굴며 노래하는 그 날의 백두대간을 그려봅니다.
통일의 그 날을 위해! 통일의 그 날을 위해!





마음과 핏줄의 힘

조도고 2 이정미

줄라 맨 허리의 역사가
50년이란다

핏줄은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것발 아래서

제살 깎기에 분주했던
동강난 반세기 역사

핏줄은 핏줄을 부르고
하나되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핏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더 헤어져 살아야 하나

긴 어둠의 터널 끝을
물고 오는 아침의 빛이 있듯이

갈라진 피가 영기는
그 날은 반드시 오리니



마음과 핏줄의 힘

마음속에 외치는
갈라진 피의 응집력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마음과 피의 태고적 결합을.

● 제주도

- 새가 되고 싶으신 할머니 / 345
- 그 날을 꿈꾸며 / 347
- 우리의 소망 / 349
- 휴전선의 꿈 / 351
- 휴전선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는... / 353
- 할아버지의 소원 / 356
- 동생과 나처럼 / 358
- 지빠귀새에 담은 바람 / 361
- 행복하길 바라며... / 363

새가 되고 싶으신 할머니

하귀초 6 박지혜

우리 옆집 할머니.
오늘도 북쪽 하늘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신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피난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생사도 알 길 없는
그리운 아들 생각에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신다.

언젠가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쪽... 북쪽 하늘을 바라.
파랑지?
그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야.



새가 되고 싶으신 할머니

내가 언젠가는
아들을 만난다는.

그리고 또 저 새를 보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
나도 새가 되고 싶단다.
어디로든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아들을 찾게.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는 갈망한다.
이산가족이 없는 현실을.

그리고 나는 희망한다.
새가 되고 싶어하시는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 날을 꿈꾸며

서귀 중앙여중 3 공현아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님 향한 내 마음도 영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반도 안 지났기에
님 향한 내 약속 유효합니다

세상이 꼭 매여 조이거든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영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님의 뜻을 배척할 때엔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영원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 날 다가올 님은
나에게 영원한 봄을 불러다 주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노래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 날을 꿈꾸며

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반도 안 지났기에

님과 함께 웃을 날을
꿈꾸어 보며,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기고 1 김대식

고귀한 한인의 피가 이 땅에 흐른 지 어언 반만년
씨 뿌릴 땅은 작았어도
터에 서린 정신만은 넓고 아름다웠건만.

하나의 피로 맹세하고 지켜오던 민족이
부질없는 두 색깔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렸구나
아아... 영문도 모르고 상처 입어 갔던 민족의 핏줄이여.

두 색깔의 옷을 걸치고
두 색깔의 총을 들고 분신을 겨누는 아픔에
백의는 피에 물들어 쓰러져 가고,
적의는 눈물에 젖어 쓰러져 가는구나.

한강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지리산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구나.

그러나
바람은 갈대를 꺾을 수는 없었으니
한인의 혼마저 찢을 수는 없었으니



우리의 소망

가시지 않은 아픔에 쓰라려 하곤 있지만
한인은 하나의 핏줄이기에 만나야 한다.
다시 만나 민족의 기상을 세워야 한다.

달은 지고
별은 사라졌으니
한인은 광명만을 기다리는구나

지나간 서로의 시간을 용서하고
손잡고 미소 띤 분신을 바라보며,
한인의 핏줄을 이어갈 때가 되었도다.

적백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이념의 총을 던져 버리고
민족의 얼을 이어 가리라.

한강에는 녹수가 흐르고
지리산에는 꽃바람이 이는구나.
갈대의 아픔마저 씻어 내리는구나.



휴전선의 꿈

동광초 6 고원보

친구야,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를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긴 끈에 묶인 휴전선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보석같은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단다.
나의 꿈이 궁금하다고?
잘 들어봐…….

나의 첫 번째 꿈은
해바라기 꽃이 되는 거란다.
따스한 햇볕을 찾아 고개 돌려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노오란 꽃말이야.

두 번째 꿈은
푸른 강물이 되고 싶어.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들을
작은 통통배에 띄워 머나 먼 바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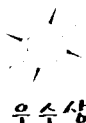
휴전선의 꿈

흘려 보내주는
이슬처럼 맑은 냇물 말이야.

나의 마지막 꿈도 궁금하다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소중한 꿈.
바로 통일의 꿈이란다.

친구야,
우리가 원하는 소중한 커다란 꿈을 향해,
넓고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둘기 한 쌍이 되어 보지 않을까?

통일의 함성이 울릴 때까지
통일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수많은 자유의 날갯짓 속에
그리움의 소식들을 가득 실어 보내자꾸나.



휴전선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는...

중문중 2 김다은

휴전선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
단단히 꺾고 부드러이 파란 나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커다란 나무
그러나 그 나무는 괴롭다.

여기 저기에서 들리는 포성의 소리
그 나무가 들었다.
이곳 저곳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그 나무가 보았다.

같은 하늘이지만 같은 하늘이 아니고
같은 땅이지만 같은 땅이 아닌
아픔에 그리움에 고통에 슬픔에
그 나무는 괴롭다.

태초부터 하나인 것을
두 개의 것으로 나누어야 좋았는가.
나무는 떠올려본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야를 흐리며...



휴전선에 서있는 오래된 나무는...

나무는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묻는다.
저 건너 북쪽 사람들을 아나요.
저 너머 남쪽 사람들을 아나요.
서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나요.

이제 그만 하자.
나무는 생각한다.
경계하는 눈빛, 겨누는 총
이제는 그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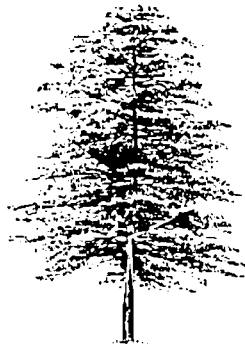
이제 올 것이다.
나무는 믿는다.
하나의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날
이제는 올 것이다.

이제 사랑하리라.
나무는 느낀다.
네가 나이고 내가 너인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리라.



휴전선에 서있는 오래된 나무는...

휴전선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는
통일이 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나무는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린다.





할아버지의 소원

대정여고 2 신효주

늘
저 새, 저 물고기가
되고 싶었던
할아버지

복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하염없는 눈물 흘리시고

속이 타는 지도 모르며
술로 달래셨던
그 그리운 마음

피를 토하시며
죽어 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운 가족 생각에
죽어 가는지조차 모르셨던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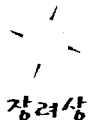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소원

그 마음
무엇에 비할까?

이젠
자유로운 그곳에 가셨으니
눈물로, 술로
지새우는 날은 없겠지

새가 되어
저 압록강의 물고기가 되어
마음껏
왔다 갔다 하세요

꿈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그리운 가족
이젠 마음껏 만나세요



동생과 나처럼

광양초 6 강경아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나와 동생이지만

한 가족 한 배를 탄
나와 동생이지만

어떨 땐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싸우지요.

한 나라 한 민족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의 땅 아래
하나의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나쁜 마음 나쁜 욕심으로
서로를 공격하지요.

영망이 되어버린 집
서로서로 도우며 깨끗이 치워요.



길바닥에 널려 있는 쓰레기
함께 도우며 하나 하나 치워나가요.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위로하고 사과하며 치료해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가 손잡고 도와주어요.

다시 또 웃으면 친해지고
다시 또 손 잡으면 웃음꽃 피요.

우리는 한 민족 한 국가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요.

나와 동생은
언제나 함께 할 형제이지요.

동생과 나처럼
남한과 북한도 하나이지요.



동생과 나처럼

언제나 손잡고 함께 나갈
하나이지요.



지빠귀새에 담은 바람

아라중 2 진유리

“어렸을 적 담귀 봤던
그 개울 속을 다시 봤으면...”

“친구들과 뛰어 놀던
청록 하늘에 다시 빠져봤으면...”

오늘도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내 귓가를 맴돈다

언제나 말해주시던
그리도 아름다웠다던 그 곳

마음에 모두 담지 못 할 만큼
벌들이 초롱초롱했고
유난히 개똥벌레가 많았다던 그 곳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지빠귀새 한 마리가 산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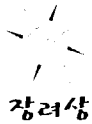


찌빠귀새에 담은 바람

새야...새야...
부디 오늘밤 나에게 날아와
깊게 울려퍼지는
할아버지의 숨죽인 울음을
너의 작은 몸에 담아서

녹이 퍼렇게 쓴
철조망을 휘휘 건너
이북고향으로 날아가
슬픔을 달래 주어라





행복하길 바라며...

중문상고 2 김영애

보고싶어 가슴 아파도
힘들게 견뎠은 50여 년.
언제 끝날지 모를 분단의 아픔

그 누가 알고 있을까?
힘들고 지쳐가는 날.
그대가 보고싶어 하늘을 원망한 날들

너무나 행복했던 날들
이젠 꿈만 같은 내 추억들.

잊으려해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들
5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보고싶다. 너의 얼굴
함께 한 시간들
분단의 슬픔은 커져만 간다.

꿈에서만 만나는 게 너무 슬퍼서
난 잠을 자고 싶지 않다.



행복하길 바라며...

이제 곧 행복이 올 거라 믿는다.
6·25의 고통, 분단의 슬픔
이제 다 사라져 버려라!

반드시 올 거라 믿으며
난 오늘도 밤새 기다린다.
너를 만날 그 시간을 떠올리며

슬땀던 기억들은
내 마음속에 있지만
이젠 사라질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행복한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은 행복하길 바라며..

주름진 손으로 오늘도
그리운 가족의 사진을 꺼내어 본다...



제8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실바람에 실은 희망

- 운문집 -

초판인쇄일 2003년 10월

초판발행일 2003년 10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021

홈페이지 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현프린트

전화 02)2273-7142